



저작자표시-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이 원 호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서울시 한국계중국인 밀집지역의
소비공간화

- 대림2동과 자양4동의 비교연구 -

2020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박미래

서울시 한국계중국인 밀집지역의
소비공간화

- 대림2동과 자양4동의 비교연구 -

이원호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박미래

인 준 서

박미래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9년 11월

심사위원장 정재준 (인)

심사위원 이원호 (인)

심사위원 이자원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현대사회는 글로벌화로 인해 국적과 국경을 초월한 이주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한국도 이주노동자, 유학생, 이민자 등의 유입이 가속화됨에 따른 급속한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을 경험하고 있다. 서울시 한국계중국인 점유공간은 독특한 문화경관을 형성한 대표적인 엔클레이브이다. 한국계중국인들은 한국에서 생활하기에 언어적으로 불편함이 없고 식습관을 비롯해 다양한 방면에서 문화적으로 장벽이 낮아 이주에 장점이 있다. 한국계중국인은 1980년대부터 이주하기 시작해 주거비용이 저렴한 서울의 구로구, 영등포구에 정착했다. 2018년 서울시를 기준으로 외국인 이주자 28만 명 중 12만 명인 43.7%가 한국계중국인이며, 가장 큰 인구규모를 가지고 있는 만큼 그들이 점유한 가리봉동, 대림동, 자양동은 서울에서도 독특한 도시경관을 가지고 있기로 유명하다. 이 지역은 최근 영화, SNS, 인터넷 방송 등 미디어 매체에 노출되면서 중국식 음식문화를 특징으로 한 소비공간으로 주목받게 되었다.

한편, 초국적 이주증가와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이라는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이주자들은 엔클레이브를 형성하여 도시경관을 변화시키는데, 에스닉 엔클레이브는 도시에 다양성을 불어넣고 매력적인 소비공간을 제공한다. 이는 감성과 경험을 중시하는 소비자의 소비행동변화와 맞물리면서 도시에 활력을 주게 된다. 즉, 도시는 엔클레이브가 갖는 문화경관을 통해 소비공간을 제공하고 더 나아가 경제적 활력을 얻게 되므로 두 현상을 유기적으로 바라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대림2동은 한국계중국인들이 친인척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국내 전통시장에 침입하여 한국인 상인들과 상업공간에 공존하는 경제 인프라를 구성하고 있었다. 한족(漢族) 중국인들은 대림동의 정통중국문화를 소비하기 위해, 한국

인들은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과 중국문화 경험을 위해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양4동은 성수동 공장지역의 탈 산업화과정에서 저렴한 주거지를 제공할 수 있었고, 이에 한국계중국인들이 저렴한 주거지와 편리한 교통, 일자리의 기회를 찾아 거주하기 시작했다. 자양4동은 주거, 상업, 문화 등의 부문에서 한국인과 한국문화에 비교적 쉽게 노출되어있는 지역인데, 특히 광진구 차원에서 자양4동을 ‘양꼬치 거리’로 명명하면서 양꼬치를 대표하는 상권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한국계중국인의 동별 인구수를 바탕으로 입지계수를 산출한 결과 한국계중국인들은 2000년대를 거쳐 2010년대에 서울의 남서부에 본격적으로 집중거주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에는 그 집중도가 더욱 뚜렷해졌음을 확인했다. 거주지 격리정도를 보기 위한 상이지수 분석결과 가리봉동 소재지인 구로구, 대림2동 소재지인 영등포구, 자양4동 소재지인 광진구는 각 58.66, 51.89, 47.58으로 서울시에서 한국계중국인의 격리정도가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림2동, 자양4동 사업자를 대상으로 인터뷰 한 결과 대림2동은 지인의 추천 등 인적 네트워크가 사업장 입지선정 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반면, 자양4동은 인적 네트워크보다 유동인구가 많고 상권이 활발한 것이 상업시설의 주요 입지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자 설문 결과 두 지역의 방문자들은 미식탐방을 방문목적으로 하며, 지인의 추천에 의해 해당 지역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대림2동은 대체로 가족과 함께 방문하고 지인을 통해 정보를 수집한다는 응답자가 다수를 차지한 반면, 자양4동은 연인과 함께 방문하며 SNS등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정보를 수집한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다. 방문자 설문조사 결과 두 지역은 공통적으로 치안과 문화차이를 완벽하게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양4동은 광진구 정책에 의해 중국 음식특화거리로 관광지화 되었지만

대림2동은 상업공간의 규모에 비해 관광지화 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부족하다. 국내 거주자와 이주자 간 갈등을 극복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상업공간을 형성하고, 매력적인 관광지로 거듭나기 위한 물리적·정서적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한국계중국인에 대한 이주민의 소외와 고립, 계토화 등에 대한 기존 연구와 달리 에스닉 엔클레이브를 소비공간으로 보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탈 산업화시대에 소비의 개념과 행동이 달라졌으며 이에 맞는 새로운 소비공간으로서 에스닉 엔클레이브가 가지는 장점과 역할 등이 연구되어야 한다. 2016년 1분기 이후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등록외국인 동별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후속 연구들이 2015년 수치를 기준으로 머물러 있었으나, 본 연구는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최신자료인 2018년 전수 자료를 분석을 했다. 한편, 연구를 위해 해당지역의 사업자와 방문객을 대상으로 직접 인터뷰를 진행했으나 연구를 위한 시간, 자원, 언어적 한계로 충분한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1
2) 연구목적	4
2. 연구의 범위	5
1) 공간적 범위	5
2) 용어의 정리	5
3. 연구의 분석흐름	6
1) 문헌연구	6
2) 정량적 연구	7
3) 정성적 연구	7
II.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10
1. 에스닉 엔클레이브의 이론적 고찰	10
1) 에스닉 엔클레이브의 개념 및 발전 단계	10
2) 한국계중국인 에스닉 엔클레이브 연구 현황	11
2. 도시의 소비공간화	13
1) 도시의 생산공간에서 소비공간으로의 변화	14
2) 젠트리피케이션과 에스닉 엔클레이브	16
III. 한국계중국인 밀집지역의 형성과 발전단계	21
1. 한국계중국인의 분포패턴과 특징	21
1) 국내이주 배경	21

2) 인구통계자료 분석	23
(1) 입지계수 분석	23
(2) 상이지수 분석	28
2. 한국계중국인 밀집지역의 발전단계	32
1) 초기정착지 가리봉동	32
2) 삶과 문화의 통로 대림2동	35
3) 다양한 소비층이 혼재된 자양4동	40
IV. 한국계중국인 밀집지역의 소비공간화	43
1. 사업자 인터뷰를 통한 소비공간화 분석	45
1) 입지요인	45
2) 상업공간 만족도	53
2. 소비자 인터뷰를 통한 소비공간화 분석	58
1) 방문요인	58
2) 소비공간 만족도	67
3. 한국계중국인 밀집지역의 소비공간화 전망	71
V. 요약 및 결론	75
참고문헌	
ABSTRACT	
부 록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자본주의로 인한 글로벌화의 가속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에 걸쳐 국가와 지역 간의 상호작용이 긴밀해진 사회가 도래했다. 한국도 이주 노동자, 유학생, 이민자 등의 유입이 가속화됨에 따른 급속한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을 경험하고 있다. 법무부 자료에 의하면 1998년 우리나라 체류 외국인 수는 30만 명이였다. 그 후 점차 증가하여 2017년 기준 210만 명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초국적 이주는 자본주의에 의해 국경을 뛰어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아온 생활문화를 가지고 새로운 장소로 이주하면서 이질적인 문화들이 혼종되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최병두, 2012). 우리나라는 2014년 5월에 ‘문화다양성 보호와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증가하는 국제이주로 인해 인구구성, 문화, 장소성과 같이 가시적·비가시적인 부문에서 변화가 발생했으며, 이는 일부 지역뿐만 아니라 사회공간의 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학문부문에서는 다문화 사회로 인한 지역경제의 변화, 이주민의 정체성 및 기존 주민들의 인식, 정부의 이주민 관련 정책에 대한 연구가 중요한 이슈로 강조되고 있다(김희순,2011; 최병두,2012; 이자원 외,2017; 심창섭 외,2017).

서울에는 일본, 베트남, 필리핀, 몽골, 나이지리아, 중앙아시아 등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엔클레이브를 형성하고 있다. 중구 광희동에 있는 몽골인 상권,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이슬람사원을 비롯한 무슬림 문화권, 이촌동 일본인타운과 서초구 반포동 프랑스마을 등은 다양한 지역에 형성된 대표적

인 다문화지역이다.

도시가 생산의 공간이 아닌 소비의 공간으로 변화함에 따라 최근 ‘문화소비’, ‘라이프스타일’과 같은 개념들이 도시연구 및 정책수립에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다. 이주자들이 만들어낸 독특한 경관은 도시를 매력적인 장소로 만들며, 외부인이 색다른 문화적 특성을 가진 공간을 방문하고 경험하면서 소비의 공간으로 자리잡게 된다. 서울의 이태원 경리단길은 다양한 국적의 거주민들이 모여 형성한 독특한 문화경관이 도시민과 관광객을 끌어들여 활성화된 대표적인 상권이라고 할 수 있다. 1960년대 이태원에 서울주둔 미군기지 및 군사시설이 입지하면서 외국인 집단주거지가 발생했다. 1970년대에는 이슬람사원이 완공되었고, 주변에 할랄 음식점과 이슬람 식료품점 등 이슬람문화상권이 발달하기 시작했다. 1980년대 이태원지역의 유흥시설발달, 1990년대 외국인 강사들의 한국유입으로 인한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장기거주자 유입 등은 2000년대 이태원을 다국적 음식 및 세계문화교류의 장소로 만들었고, 특히 경리단길은 관광특구로 조성되어 쿼어 및 지구촌 축제 등 다문화의 대표적인 핫 플레이스로 거듭났다. 이러한 현상으로 미루어 볼 때 세계화에 따른 도시 내 문화 간 차이를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아가 문화다양성을 ‘새로운 도시 활성화의 원동력’으로 인정하고 소비공간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결국 이주민이 만들어낸 새로운 문화경관은 외부인의 방문을 자극시키고, 소비공간인 도시에 새로운 활력과 다양성을 불어넣는 역할을 한다. 동일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주민들이 모여 자생적으로 커뮤니티공간을 형성하고 있는 에스닉 엔클레이브는 그동안 우범지역으로 인식되기도 했으나, 최근 이주민들의 경제활동 및 주거공간으로서 독특한 문화경관을 보여주는 공간으로 도시의 다양성에 기여함을 인정받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차이나타운, 리틀 인디아, 아랍스트리트 등 에스닉 집단을 중심으로 형성된 일부 지역은

해당 도시를 대표하는 매력적인 문화관광자원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관광연구의 대상으로 서구에서 활발하게 분석되어왔다(심창섭·강형철, 2017). 서울시 한국계중국인 점유공간도 도시에서 독특한 문화경관을 형성한 대표적인 엔클레이브이다. 한국계중국인의 엔클레이브는 차이나타운과는 또 다른 특징을 가진다. 한국계중국인들은 우리나라에서 생활하기에 언어적으로 불편함이 없고 식습관을 비롯해 다양한 방면에서 문화적으로 장벽이 낮아 이주에 장점이 있다. 또한 한국계중국인들의 이주는 한족과 이주 목적에서 차이가 있으며, 규모와 분포 면에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차이나타운’과 분리하여 비교할 필요가 있다.

한국계중국인은 1980년대부터 이주하기 시작해 주거비용이 저렴한 서울의 구로구, 영등포구에 정착했다. 2018년 서울시를 기준으로 이주민 28만 명 중 12만 명인 43.7%가 한국계중국인이며¹⁾, 가장 큰 이주민 규모를 가지고 있는 만큼 그들이 점유한 가리봉동, 대림동, 자양동은 서울에서도 독특한 도시경관을 가지고 있기로 유명하다. 이 지역은 최근 영화, SNS, 인터넷 방송 등 미디어 매체에 노출되면서 중국식 음식문화를 강점으로 한 소비공간으로 주목받게 되었다. 따라서 서울시의 대표적인 에스닉 엔클레이브로서 한국계중국인 밀집지역의 형성과정과 특징, 소비공간으로의 변화를 연구하는 것이 서울시 도시변화의 새로운 한 측면을 이해하는데 필요하다고 본다.

2) 연구목적

초국적 이주증가와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이라는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이주자들은 엔클레이브를 형성하여 도시경관을 변화시키는데, 에스닉 엔클레이브는 도시에 다양성을 불어넣고 외부인으로 하여금 매력적인 소비공간을 제

1)법무부 등록외국인 국적별·지역별 현황(2018. 12. 31기준)

공할 수 있다. 이는 감성과 경험을 중시하는 시민의 소비행동변화와 맞물리면서 도시에 활력을 주게 된다. 서울시에 형성된 한국계중국인 밀집지역은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경관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비공간을 제공하고 경제적 활력을 얻게 되므로 두 현상을 유기적으로 바라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에스닉 엔클레이브에 기반한 한국계중국인 밀집지역의 형성과정과 발전단계를 파악하고 소비공간화 과정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에스닉 엔클레이브와 소비공간,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이론을 바탕으로 분석의 틀을 마련한다.

둘째, 한국계중국인의 국내 이주배경과 현황을 고찰하고 서울시의 대표적인 한국계중국인 밀집지역인 대림2동과 자양4동을 사례로 지역별 특징과 발전 단계를 비교 및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한국계중국인 밀집지역인 대림2동과 자양4동의 소비공간화를 비교 분석하고 미래 도시공간정책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2. 연구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법무부 자료에 의하면 2018년을 기준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한국계중국인은 총 124,250명이며 영등포구(23%), 구로구(21%), 금천구(13%), 관악구(9%), 광진구(5%) 순으로 분포하고 있다. 가리봉동은 가리봉시장을 중심으로 한 조선족의 초기 정착지역이며, 대림2동은 대림중앙시장을 중심으로 한 서울시 최대의 한국계중국인 밀집지역이다. 자양4동은 양꼬치 거리(중국음식문화거리)를 중심으로 한국에 안정적으로 정착한 조선족, 중국인 유학생, 내국인이 상호작용하는 성숙한 상권을 형성하고 있다. 그 중 에스닉 엔클레이브를 형성하고 이주민의 주거와 상권이 적절하게 형성된 대표적인 지역인 대림2동(영등포구), 자양4동(광진구)을 연구범위로 선정했다.

2) 용어의 정리

본 연구의 대상은 조선족, 재중동포, 재중조선인 등 다양하게 불리고 있다. 지금까지는 일상과 학문에서 ‘조선족’이라는 명칭을 가장 흔하게 사용해왔다. 그러나 ‘조선족’이라는 단어에는 그들을 중국소수민족으로 보는 견해가 반영되어 있다. 조선족의 정체성은 중화민족으로서의 조선족, 에스니시티(종족적 차원)로서의 조선족, 탈국가적 현상으로서의 조선족 등 복합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최우길2019). 따라서 그들을 명확하게 지칭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한국에 정착한 일부 조선족들이 범죄와 연루되면서 ‘조선족’이라는 단어를 비윤리적인 집단으로 일반화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중립성에 한계가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조선족’연구는 그들의 한국 내 인식

에 대한 연구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흔히 쓰이는 ‘조선족’이라는 용어 대신 객관성과 통일성을 위해 법무부 및 국가통계포털에 기재된 ‘한국계중국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에스닉 엔클레이브는 이민자집단에 의해 형성된 집거지로 민족집단이 일정한 공간적 범위에서 밀집하여 거주하는 지역을 말하며 차이나타운, 코리아타운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심창섭 외, 2017). 에스닉 엔클레이브는 동질한 문화권의 이주자들이 모여 밀집된 주거 및 상업시설을 포함하며, 독특한 문화경관을 만들어낸다. 서울시의 한국계중국인이 밀집된 가리봉동, 대림동, 자양동은 주거 및 상업시설 뿐만 아니라 가리봉시장, 대림시장, 양꼬치 거리라는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발달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한국계중국인의 엔클레이브는 그들의 주거공간과 상업지역, 인근 전통시장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3. 연구의 분석흐름

1) 문헌연구

에스닉 엔클레이브, 에스닉빌리지, 에스닉타운, 집거지 등을 키워드로 한 문헌자료를 통해 개념과 성장과정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한국계중국인 집거지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시 가리봉동, 대림동, 자양동을 연구한 문헌자료를 통해 각 지역의 특성과 현황을 정리했다. 생산공간에서 소비공간으로 전환되는 도시현상을 확인하기 위해 문화산업, 문화소비,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에 관한 문헌을 참고했고, 서울시도시재생포털의 자료를 통해 서울의 역사, 이미지, 속성 등 문화콘텐츠의 브랜드화로 소비공간을 활성화시키는 사례를 조사했다.

2) 정량적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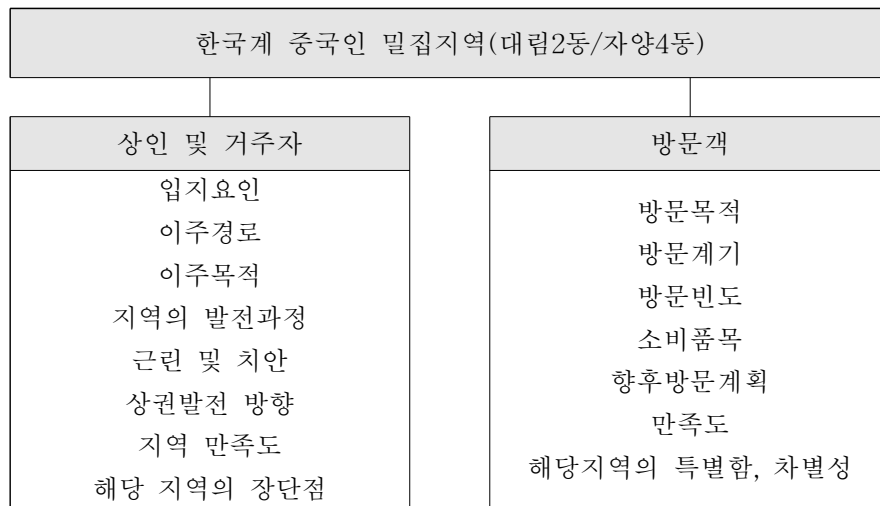
대상지역의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법무부, 국가통계포털의 정량적 자료를 통해 이주 목적과 국적, 성별 및 나이 등을 조사했으며 이를 서울시 지도에 표시하여 시각화했다. 특히 한국계중국인의 엔클레이브를 연구지역으로 하므로 인구의 분포와 밀도를 파악하기 위해 동별 등록외국인자료를 활용했다. 서울시 동별 인구자료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2016년 1/4분기 이후 제공이 중단되었다. 해마다 변화하는 외국인 인구구조는 매우 역동적이므로 최근년도의 동별 등록외국인현황 자료가 필요했다. 따라서 2017년, 2018년 자료분석을 위하여 통계청의 마이크로데이터 자료를 구매하여 전수조사 자료를 직접 가공해 분석하였다. 서울시 한국계중국인의 동별 집중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입지계수를 구해 단계구분도로 제시했으며, 한국계중국인의 격리정도를 보기 위해 입지계수가 높은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상이지수를 분석했다.

3) 정성적 연구

한국계중국인 밀집지역이 주는 문화경관이 실제로 어떻게 인식되고 소비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성적 조사로 대림2동, 자양4동을 대상으로 예비조사 단계를 갖고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참여관찰과 현장인터뷰,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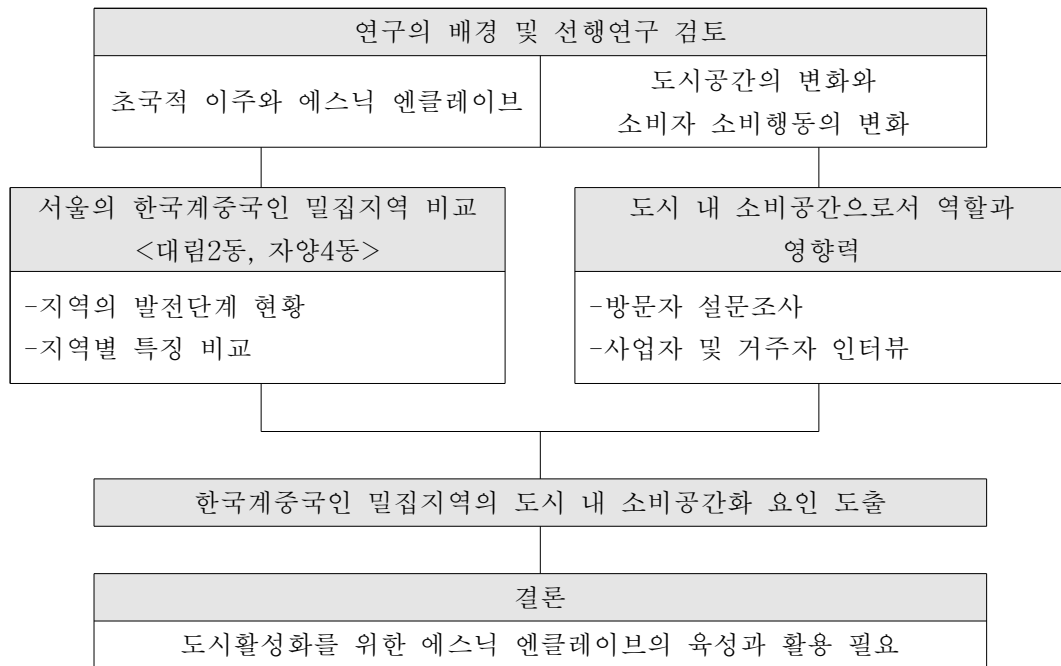
대상지역에 거주하는 한국계중국인과 대상지역을 방문한 한국인방문객 인터뷰를 통해 거주민과 방문객의 속성, 소비패턴, 대상지역에 대한 인식, 알게 된 경로와 만족도 등을 조사했다. 또한 사례지역에서 10년 이상 운영된 생

활서비스 사업장을 방문하고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여 지역의 전반적인 역사와 지역성, 공간에 대한 인식 등을 정리했다.



<그림 1> 설문조사 및 인터뷰 구성 목록

지금까지의 연구방법을 토대로 한 본 연구의 분석흐름은 다음과 같다. 초국적 이주와 에스닉 엔클레이브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서울시 한국계 중국인 밀집지역의 발전단계와 지역별 특징을 비교하는 한편, 현대사회의 도시공간 변화와 소비행태 변화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한국계중국인 밀집지역이 소비공간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방문자 인터뷰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한국계중국인 밀집지역의 소비공간화 요인을 파악하고 두 지역의 차이점을 비교한다. 또한 초국적 사회에서 도시의 다양성과 활성화를 위해 에스닉 엔클레이브의 육성과 활용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그림 2> 연구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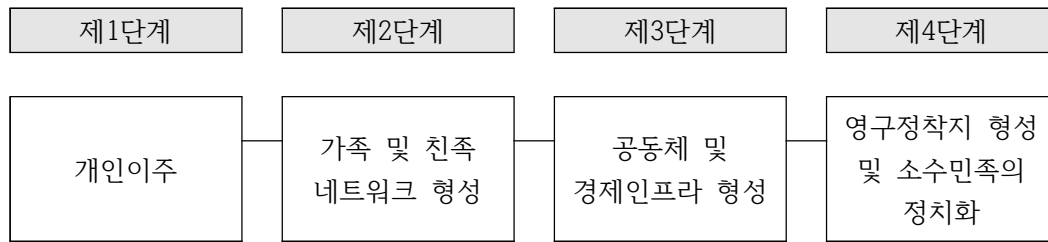
II.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1. 에스닉 엔클레이브의 이론적 고찰

1) 에스닉 엔클레이브의 개념 및 발전 단계

에스닉 엔클레이브(Ethnic Enclaves)는 일반적으로 소수인종집단이 주류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독자적인 생활공간에 집적하며 영세하게 자영업을 하며 형성한 사회적·경제적 공동체를 의미한다. 그러나 최근 세계화와 다문화사회로 접어들면서 그 의미와 영역이 확장되어 더욱 포괄적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에스닉 엔클레이브는 주류사회와 다른 이질적인 문화를 생산하며 공간을 변화시킨다. 즉 에스닉 엔클레이브는 특정한 민족이 주류사회 속에서 자신의 생활과 문화를 유지시켜나가는 공간인 셈이다.

에스닉 엔클레이브는 일정한 단계를 거치며 성장하고 변화한다. 첫 번째 단계는 젊은 임시노동자들이 유입되는 단계로 다양한 요인에 의해 한국계중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으로 이주하여 정착지를 선택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두 번째 단계는 체류기간이 증가하면서 자본을 축적하고 출신지역별로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단계이다. 세 번째는 이민자 관련 상업시설의 등장으로 이민공동체가 조직되고 그들을 위한 상점, 일자리가 등장하여 지역에 밀접해지는 단계, 네 번째 단계는 영구적인 정착지로 발전해 이민자 중심 상업지역이 성장하고 정책과 여건에 따라 이민자가 시민권을 획득하거나 영구적인 소수민족으로 남는 단계이다(박세훈 외, 2009).



<그림 3> 에스닉 엔클레이브 발전단계

자료: 박세훈 외(2009)재구성

2) 한국계중국인 에스닉 엔클레이브 연구 현황

한국계중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한 시기는 법적으로 출입국이 자유로워진 1990년대지만 한국계중국인의 에스닉 엔클레이브에 대한 연구는 그들이 자리를 잡고 이국적인 공간을 형성하기 시작한 2000년대에 들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2010년을 전후로 서울의 한국계중국인 이민자 규모가 크게 증가했고, 이에 따라 각 지역은 물리적·경제적으로 눈에 띄게 변화했다. 따라서 2010년 이후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공간적 연구가 진행되었다.

한국계중국인들은 한국사회에 적응함에 있어서 ‘현지적응형’, ‘귀소지향형’, ‘신유목민형’, ‘상황선택형’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이종구 외, 2010). ‘현지적응형’ 집단은 중국에 돌아가더라도 주류 집단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처럼 한국사회에 주체적으로 통합하고자한다. ‘귀소지향형’ 집단은 현지적응형과 달리 한국을 정착의 대상으로 간주하지 않고 돈을 벌어서 돌아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재한 중국동포 2세, 결혼이민자 등 출신국의 정체성을 유지하지 않고 필요에 의해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는 집단은 ‘신유목민형’으로, 정책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이익의 크기에 따라 거취를 선택하는 집단은 ‘상황선택형’으로 분류된다. 한국계중국인들은 단기적인 경제활동 후

돌아가는 ‘귀소지향형’집단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나, 초기목적과 달리 한국에 대한 사회문화적, 심리적 귀속의식 등에 의해 자발적인 선택으로 한국 사회에 영주하고자 하는 ‘현지적응형’집단으로 변화하며 집값이 비교적 저렴한 구로구와 영등포구를 중심으로 생활근거지를 점차 확대시켜나갔다(김현선, 2010).

저렴한 주거비용과 편리한 교통은 한국계중국인 에스닉 엔클레이브의 공통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2동, 광진구 자양4동은 한국계중국인 거주자의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에 밀접하게 연결되어있기 때문에 중국풍 문화거리나 먹거리 타운 등 여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도시공간을 보여준다. 이러한 대표적인 에스닉 엔클레이브 공간은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인구구성과 주거양상 등의 요소로 미루어보아 가리봉동은 한국계 중국인들의 초기 정착지로 ‘귀소지향형’집단이 단기간 체류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 자양4동은 한국 생활에 적응한 ‘현지적응형’, 결혼 및 가족구성원의 영향을 받은 ‘신유목민형’, 사업의 확대 등을 경험한 ‘상황선택형’집단이 2차 정착지로 서 주류사회에 보다 동화된 양상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방성훈 외, 2012). 한편, 대림2동은 서울시에서 한국계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대림2동은 서울시는 물론 전국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에스닉 엔클레이브로 꼽히는 만큼 한국계중국인이 한국사회에 적응하게 돕는 통로(Portal)로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거주민 간 갈등과 인식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에서는 대림2동을 에스닉 엔클레이브로서 이주의 통로역할을 하는 동시에, 한국인들에 의한 차별과 낙인으로 경계가 형성된 사회-문화적 게토라고 표현하기도 한다(이화용, 2015).

최근의 산업 및 경기침체 현상으로 한국계중국인들이 일할 수 있는 일용직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초기 정착지로서 가리봉동의 역할이 상실되었고, 자양

4동과 더불어 재개발지역으로 지목됨에 따라 이주민들은 해당 지역을 떠나게 되었다. 한국계중국인들의 대표적인 점유공간이었던 대림2동은 지역의 활성화로 임대료상승을 겪게 되었고, 새로운 이주자로 한족이 등장하면서 공간의 속성이 이전과 다르게 재구성되고 있으므로 최신 자료를 바탕으로 한 정성적·정량적 연구가 필요하다.

2. 도시의 소비공간화

소비공간으로서 도시를 이해하기 위해 앞서 '소비'에 대한 정의와 현대 사회에서 소비가 갖는 의미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 이루어지는 행위를 '소비'라고 정의하며, 소비는 필수소비와 문화소비로 구분할 수 있다. 필수소비는 의식주를 비롯한 생활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소비를 말한다. 물자가 부족해 필수소비가 충족되지 못했던 과거에는 생산을 중시하는 사회구조였으나 산업화 이후 필수소비가 충족되자 과소비, 과시소비 등 다양한 소비패턴이 나타났고 소비를 중시하는 사회가 도래하였다. 현대사회는 대부분 물질의 풍요 속에서 생존에 필요한 필수소비보다 그렇지 않은 문화소비를 지향하는 경향이 있다(이정화, 2015). 문화소비는 여가문화의 발전, 인터넷 및 모바일의 발달, 저출산·고령화, 글로벌화의 진전 등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 촉진된다. 특히 도시의 전자정보통신수단 발달과 소득증가는 소비에 대한 욕구를 증가시키며, 과학기술과 문화산업의 발전에 의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소비는 특정한 판매 시점에 이루어진 경제적 거래뿐만 아니라 거래주체의 심리적 측면, 활동, 이동, 재화의 재이용 등 사회적·문화적 측면을 포함하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즉, 소비활동은 사회·문화적 측면에 의해 이루어지는 행위이며 이러한 행위는 물리적인 공간 혹은 이동을 발생시키므로 경제지리학의 핵심주제로 다뤄지게 되었다.

소비행위를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는데, 경제지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관점의 첫 번째는 소비자가 제품의 가격과 소비자정보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한다는 소비자주권 관점이다. 두 번째로는 자본주의 기업에 의해 소비자가 유혹에 빠져 소비활동을 한다는 수동적인 소비자관점으로, 경제 시스템에서 생산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소비를 이해하기 위한 마지막 관점은 문화주의적 소비자관점이다. 문화주의적 소비자관점에 의하면 소비자는 소비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구축하고 소비자와 기업은 상호 유기적이며, 이를 통해 사회에 더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이때 정체성을 구축하는 과정은 장소 특징적이므로 공간이 소비를 유도하도록 설계될 수 있으며, 반대로 특정한 소비공간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소비의 지리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Neil M. Coe et al., 2006; 안영진 외, 2011).

1) 도시의 생산공간에서 소비공간으로의 변화

18세기 영국의 산업혁명(Industrial Revolution)으로 인한 제조업의 발전과 산업화는 도시를 형성하는 주요 동력이 되어왔다. 산업화는 영국뿐만 아니라 미주, 유럽, 아시아 등 다른 지역까지 퍼져나갔고, 이는 곧 세계도시와 세계경제에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고급 서비스의 경제가 중요하게 대두되면서 3차 산업으로의 변화가 일어났다. 이 역시 세계 곳곳의 도시에 영향을 미쳤으며, 제조업 중심의 산업 경관 입지에 변화를 가져왔다.

Stanback(2002)은 대도시의 제조업 부문 쇠퇴에 대하여 목격한 것을 다섯 가지로 제시했다. 첫 번째는 고용 창출의 원천으로서 서비스업의 중요성이 증대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대도시와 비도시 지역에서 경제의 역할이 압도적으로 대조되는 점이다. 세 번째는 인구 규모에 따라 제조업, 금융, 의료 서비스, 휴양 등이 경제적으로 특화된다는 것이다. 네 번째는 대도시마다 고

용, 수입, 소득, 소비의 성장패턴에 차이가 심하다는 것이며, 마지막인 다섯 번째는 대도시 내에서 총 수요의 원천으로서 불로소득(non-earned income)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이는 곧 소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위의 다섯 가지 내용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도시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도시의 고용, 소득, 소비 등 다양한 부문을 변화시켰다고 이야기한다. 즉, 도시는 더 이상 제조업을 통한 생산을 창출하지 못하며, 고급 서비스 또는 생산자 서비스에 의한 배당금, 이자, 이전소득 등에 의해 도시경제를 구성하게 되었다.

도시의 경제변화는 이처럼 사회문화적 맥락에 의해 개념화 할 수 있는데 산업화가 사회적 맥락이라면, 최근 급속해지고 있는 세계화는 문화적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다. 세계화에 의한 국제이주는 문화 확산 및 전파의 핵심 원동력이다. 국제이주는 음식, 의복, 언어 등 새로운 문화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들만의 독특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현대의 소비사회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경향으로 취향의 글로벌화를 들 수 있다. 고차산업에 의한 도시의 소득증가는 소비자로서 하여금 소비권태감을 유발하고, 이는 문화적 다양성과 이국적인 것에 대한 호기심과 수요의 증대를 만들어낸다. 즉, 산업화시대 생산의 공간이었던 도시는 고차산업화와 세계화, 글로벌 상품사슬에 의존하면서 소비의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Florida(2018)도 산업화시대에 도시는 규모의 경제 즉, 도시가 더 큰 공장 과 더 많은 노동자를 유인하여 생산을 증가시킬 때 비로소 도시, 기업, 국가의 경쟁력이 힘을 얻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1세기 창조경제의 시대에서는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더 이상 생산측면이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고 말한다. 수요측면에서 소비자들은 더욱 다양한 서비스와 기술의 혁신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기술혁신을 주도하는 ‘창조 계층’을 더 많이 끌어들이는 도시가 경쟁력 있는 도시로 거듭나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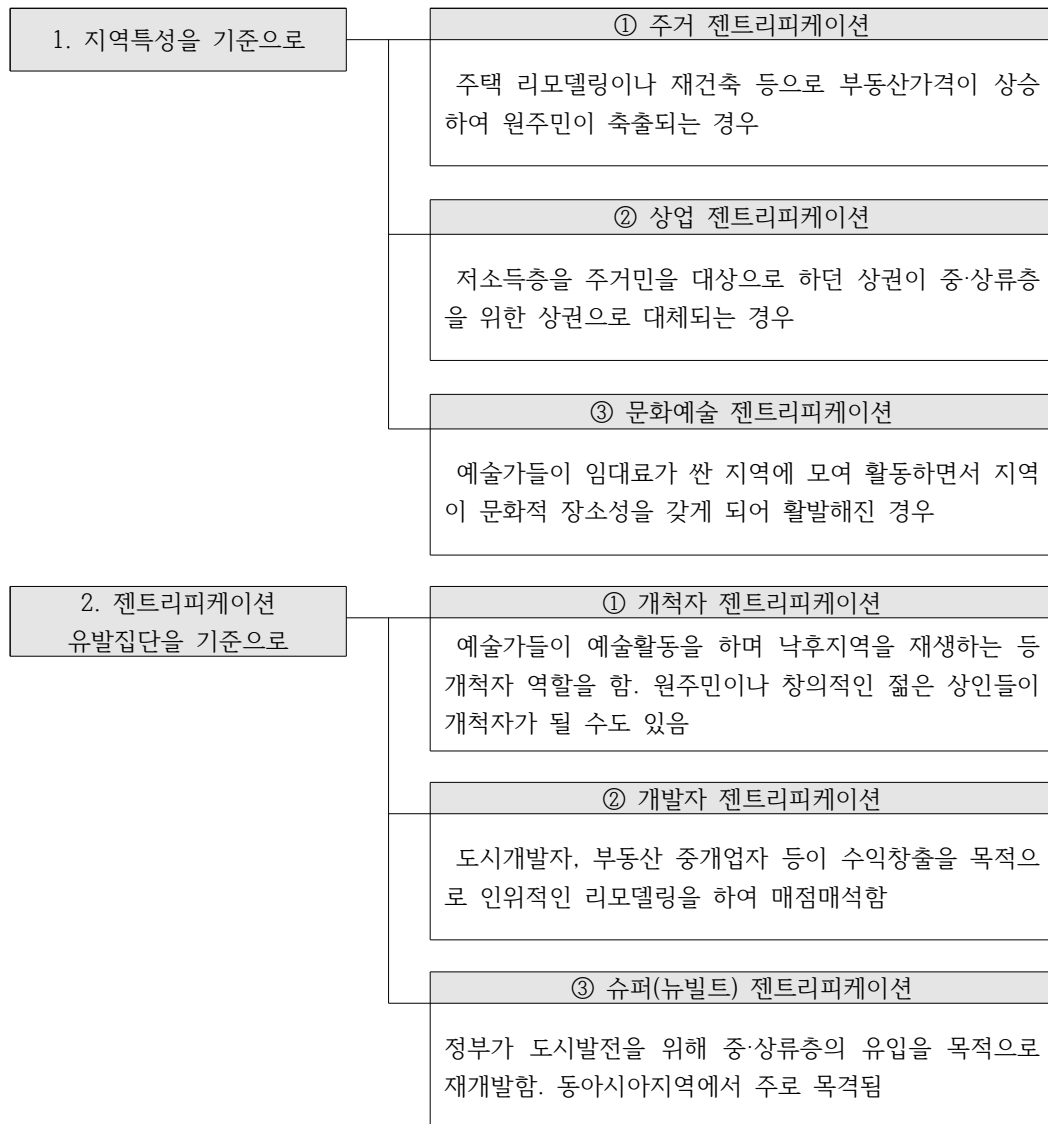
2) 젠트리피케이션과 에스닉 엔클레이브

도시의 소비공간화로의 전환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현상이 바로 젠트리피케이션이다. 젠트리피케이션은 1950년대 영국 런던의 저소득층 주거지역에서 목격되었는데, 저소득층의 주거지에 중·상류층이 입주하기 시작하면서 주거환경이 개선되자 임대료가 상승하여 저소득층이 해당 지역을 떠나는 것에서 유래된 용어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본래 젠트리피케이션의 초점이 쫓겨나는 이들에게 있다는 것이다.

젠트리피케이션의 유형은 두 가지 유형으로 논의된다(정원오, 2016). 첫 번째는 젠트리피케이션 지역의 특성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며 ‘주거 젠트리피케이션’, ‘상업 젠트리피케이션’, ‘문화예술 젠트리피케이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주거 젠트리피케이션은 주택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등을 통해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여 임대료와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원주민을 축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상업 젠트리피케이션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던 상권이 중·상류층을 위한 상권으로 대체되어 인기 있는 상권으로 발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상업 젠트리피케이션은 특히 전통과 역사를 간직했던 골목상권이 프랜차이즈나 고급상권 등으로 채워지면서 장소성을 잃게 되므로 도시공간의 다양성 측면에서 이러한 현상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문화예술 젠트리피케이션은 예술가들이 임대료가 저렴한 지역에서 예술활동을 하면서 지역이 문화적 장소성을 갖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두 번째는 젠트리피케이션을 유발하는 집단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이는 ‘개척자 젠트리피케이션’, ‘개발자 젠트리피케이션’, ‘슈퍼(뉴빌트) 젠트리피케이션’으로 구분된다. 개척자 젠트리피케이션은 예술가들이 개척자로서 예술활동을 하며 낙후된 지역을 활기 있게 만들어 지역을 재생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지역을 변화시키고자하는 원주민이나 창의적인 젊은 상인들

이 개척자가 될 수도 있다. 개발자 젠트리피케이션은 부동산 중개업자나 도시 개발자들이 수익을 목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건물을 리모델링하거나 매점 매석하는 것을 말하며, 슈퍼(뉴빌트) 젠트리피케이션은 정부 차원에서 중·상류층의 유입을 위해 지역을 재개발하는 경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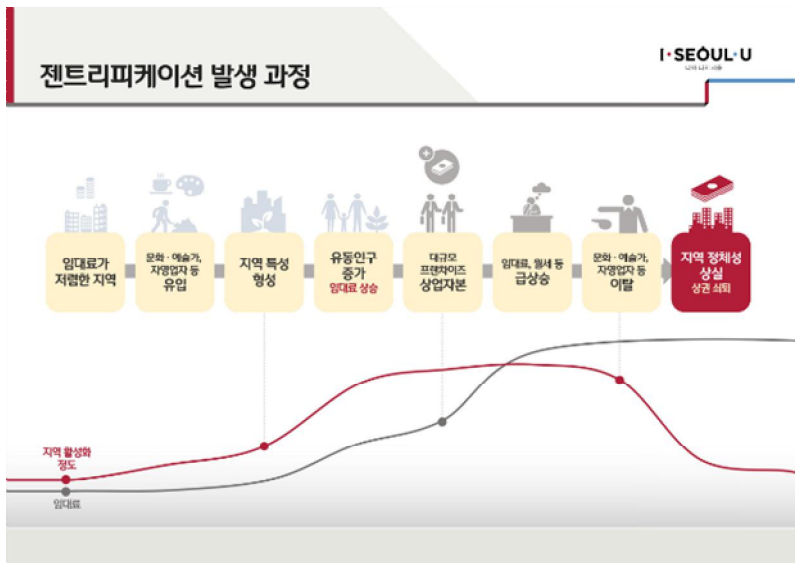


<그림 4> 젠트리피케이션의 유형

자료: 정원오, 2016 재구성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국내연구는 2000년대에 조금씩 진행되었고 2015년에 와서야 비교적 활발하게 연구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화과정에서 주택의 재개발과 도심의 재정비로 일종의 슈퍼 젠트리피케이션을 겪어왔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다양한 분류의 젠트리피케이션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특히, 서울을 대상으로 한 대다수의 연구는 ‘젠트리피케이션’을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서울시에는 수많은 상업 젠트리피케이션 지역이 있는데, 서울연구원(2016)은 서울시 상업 젠트리피케이션의 대표적인 지역으로 경리단길과 연남동을 꼽았다. 이 지역들은 일부 건물주의 부당한 행태와 상점 간의 경쟁으로 인한 폐해로 지역의 고유성을 상실하는 문제가 발생했다(그림3, 그림4 참조). 이러한 부작용은 정부차원의 제도개선과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해결방법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하는 에스닉 엔클레이브는 쇠퇴하고 임대료가 저렴한 곳에 이민자가 이주하면서 지역을 대체하고, 대체된 이민자들에 의해 공간에 이국적인 음식이나 생활서비스, 종교 및 일자리 같은 새로운 문화경관을 소개하고 창출한다는 특징을 가지므로, 지역특성을 기준으로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이자 문화예술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유발집단을 기준으로 할 경우 이민자집단이 개척자가 되어 낙후지역을 변화시키고, 그 단계가 성숙해지면 정책적으로 그 곳을 이민자들의 거리, 다문화공간으로 명명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하므로 개척자 젠트리피케이션이자 슈퍼 젠트리피케이션의 공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 5> 서울시 젠트리피케이션의 발생 과정
자료: 서울시 공식 블로그



<그림 6> 서울시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 대상지역
자료: 서울시 공식 블로그

Ⅲ. 한국계중국인 밀집지역의 형성과 발전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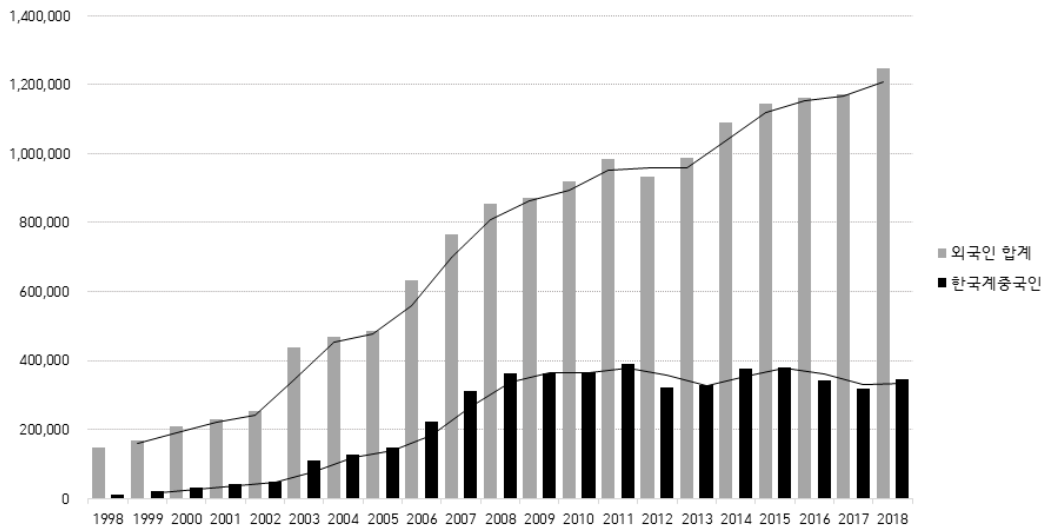
1. 한국계중국인의 분포패턴과 특징

1) 국내이주 배경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후 노동운동이 확산되었고 노동자들은 3D업종을 기피하기 시작했다. 국가경제가 발전하고 교육인구가 늘어나면서 인구가 감소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경제활동인구 또한 줄어들었다. 노동자의 임금상승과 인력난이 발생하는 한편, 국내 노동시장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변화하는 현상이 일어났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변화로 저렴한 생산 노동력을 필요로 하면서 저개발 국가로부터 노동이주가 발생하게 되었다. 정부는 1990년대 초반 외국인 유입 정책을 실시했고, 같은 시기 한중수교(1992년)로 중국대륙에 거주하던 동포들의 한국 친지방문이 허락되었다. 마침 중국에서 개혁개방 이후 일자리를 필요로 하던 동북 3성 및 연변지역 한국계중국인들은 이러한 사회적·정치적 변화를 통해 한반도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시기적절한 기회로 한국계중국인의 국내유입이 촉진되었으며, 특히 한국계중국인에게 우리나라는 언어가 가능하며 친족 네트워크가 남아있는 지역이라는 장점이 있었다. 무엇보다 당시 우리나라는 중국과 지리적으로 멀지 않으며 중국본토에 비해 임금이 훨씬 높고 일자리가 있다는 점에서 한국계중국인들이 진입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한국계중국인들은 남성의 경우 건설업 등 계절노동의 일용직 노동자로 활동하고, 여성은 언어의 유사성을 기반으로 하는 가사노동, 간병인 등으로 활동하며 경제활동의 기회를 얻는다(이영민, 2014). 이들 업종은 모두 사회의

경기불황과 경기호황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노동계층이다. 따라서 해마다 급변하는 경제상황에 따라 이주에 영향을 받는 집단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그림 7> 연도별 국내 등록외국인(장기체류기준)

자료: 법무부 통계연보

법무부의 ‘등록외국인 현황’자료를 바탕으로 1998년부터 2018년까지 전체 외국인과 한국계중국인 인구변화 추이를 확인해 보면, 우선 한국계 중국인은 우리나라 전체 등록 외국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집단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2018년을 기준으로 국내에 장기간 거주하는 등록외국인 수는 총 1,246,626명인데, 그 중 27.7%인 345,318명이 한국계중국인이다. 한국계중국인의 국내 유입은 1990년대부터 2008년까지 꾸준히 증가했으나 2008년을 기점으로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주초기의 한국계중국인들은 대부분 일용직 건설 및 요식업 보조노동자로 일했는데, 2008년 경제 위기와 2009년 5월에 시행된 ‘방문취업동포 건설업종 취업등록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방문취업동포 건설업종 취업등록제’는 방문취업동포가 건설업에 취업하기 위해서 건설업 취업등록 신청 및 취업교육 등 절차를 거쳐 반드시 “건설업 취업 인정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증명서가 없이는 건설업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이다. 당시 한국계중국인은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 중 42.5%를 차지했으나 그 이후 점차 줄어들어 현재 27.7%로 비중이 현저하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인구통계자료 분석

(1) 입지계수 분석

한국계중국인들이 서울시에 어떻게 밀집되어 있는지 보기 위해 입지계수 (Locational Quotient)를 통해 특화된 정도를 알아보려고 했다. 입지계수는 주로 지리, 경제, 부동산학에서 특정지역의 특정산업이 전국평균대비 얼마나 밀집하여 입지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지표로 활용되며 $LQ > 1$ 인 경우 전국에 비해 z지역의 i산업이 특화되어 있는 것으로 지역의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LQ = 1$ 인 경우 z지역의 i산업은 전국평균과 같으며 자급자족하는 산업이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LQ < 1$ 인 경우 z지역의 i산업은 전국에 비해 특화되지 못하고 열세하며 지역경제가 위축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가공하여 국적별/동별 외국인 인구수와 한국계중국인 인구수를 산출해 냈으며, 분석을 위한 수식은 다음과 같다.

$$LQ = \frac{z\text{지역 한국계중국인구성비}}{\text{전국 한국계중국인구성비}} = \frac{\frac{z\text{동 한국계중국인 인구}}{z\text{동 전체외국인 인구}}}{\frac{\text{전국 한국계중국인 인구}}{\text{전국 전체외국인 인구}}}$$

입지계수 분석결과(그림8) 2006년 서울의 대부분지역이 1이상의 입지계수

를 가지고 있었다. 이는 전국평균에 비해 서울시에 한국계중국인이 더 많이 거주하기 때문이다. 한편, 구로구 가리봉동과 영등포구 대림2동 지역은 당시 입지계수 2.5이상으로 한국계중국인의 밀집도가 전국평균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지역이었다. 2007년 3월 4일 방문취업제(H-2사증)²⁾가 시행되었으나 2008년 경제위기와 2009년 ‘방문취업동포 건설업종 취업등록제’로 한국계중국인 인구 증가에 영향을 주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 강북 지역의 한국계중국인 입지계수가 급격히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 입지계수 2.5이상인 동이 없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계중국인은 일용직이나 건설업, 외식산업에 종사하므로 경기침체에 취약한 집단 중 하나이다. 2015년에도 여전히 입지계수 2.5이상인 동은 없었으며, 2010년에 비해 입지계수가 1보다 작은 동이 많아졌다. 입지계수가 1보다 작은 동은 한국계중국인의 비중이 전국평균보다 낮다는 것을 의미하며, 2015년에 한국계중국인들의 절대인구가 감소했거나, 다른 국적 외국인들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18년에는 한국계중국인의 주요거점인 서울 서남부지역이 입지계수 2.5이상으로 다시 상승했다. 이는 2018년 11월을 마지막으로 한국계중국인들의 방문취업비자인 H-2비자가 발급이 중단되면서 그 해에 비자를 받기위한 이주가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기존 한국계중국인 밀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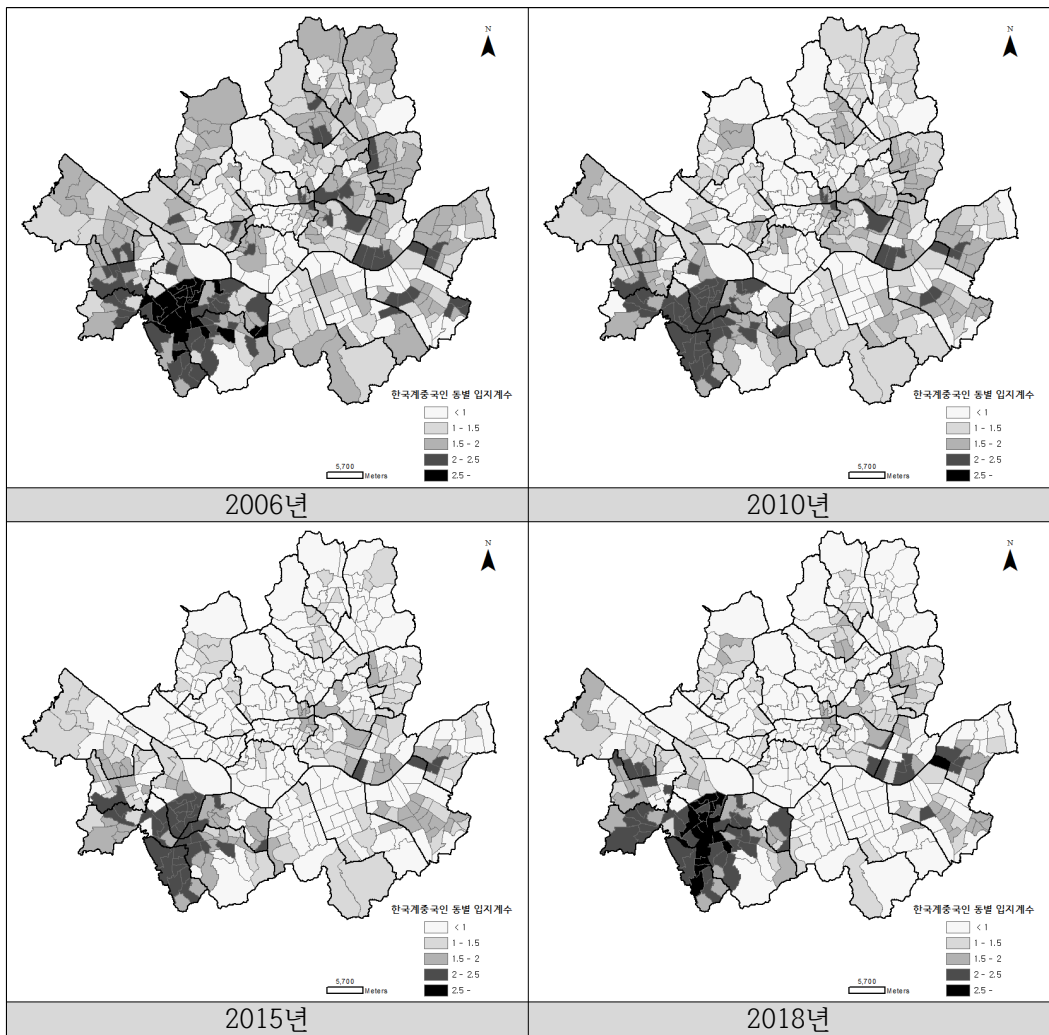
2) H-2비자 대상 ①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로서 대한민국 호적(제적)에 등재되어 있는 자 및 그 비속; ②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인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자; ③「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해당하거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자;④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국익증진에 기여한 자; ⑤유학(D-2) 자격으로 재학 중인 자(1학기 이상을 마친 자)의 부·모 및 배우자; ⑥2006년 시행된 "동포 자진귀국지원정책"에 따라 출국한 동포; ⑦연수추천단체의 산업연수생(투자연수생은 제외)으로 2년 11개월(단, D-3-5 자격은 1년 11개월 이상)을 산업연수 및 연수취업 후 이탈하지 않고 귀국하여 2개월이 경과한 자; ⑧1호 내지 7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이하 '무연고동포'라 한다)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국말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 추첨 등의 절차에 의하여 선정된 자; ⑨중국국적을 가진 외국국적동포로서 1949년 10월 1일 전에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에서 중국으로 이주하였거나 그 국가에서 출생한 자.

- 대한민국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지역인 서울시 서남부지역 이외에 송파구 풍납1동, 석촌동, 광진구 자양2동, 강동구 천호동, 성내동이 한국계중국인 특화지역으로 새롭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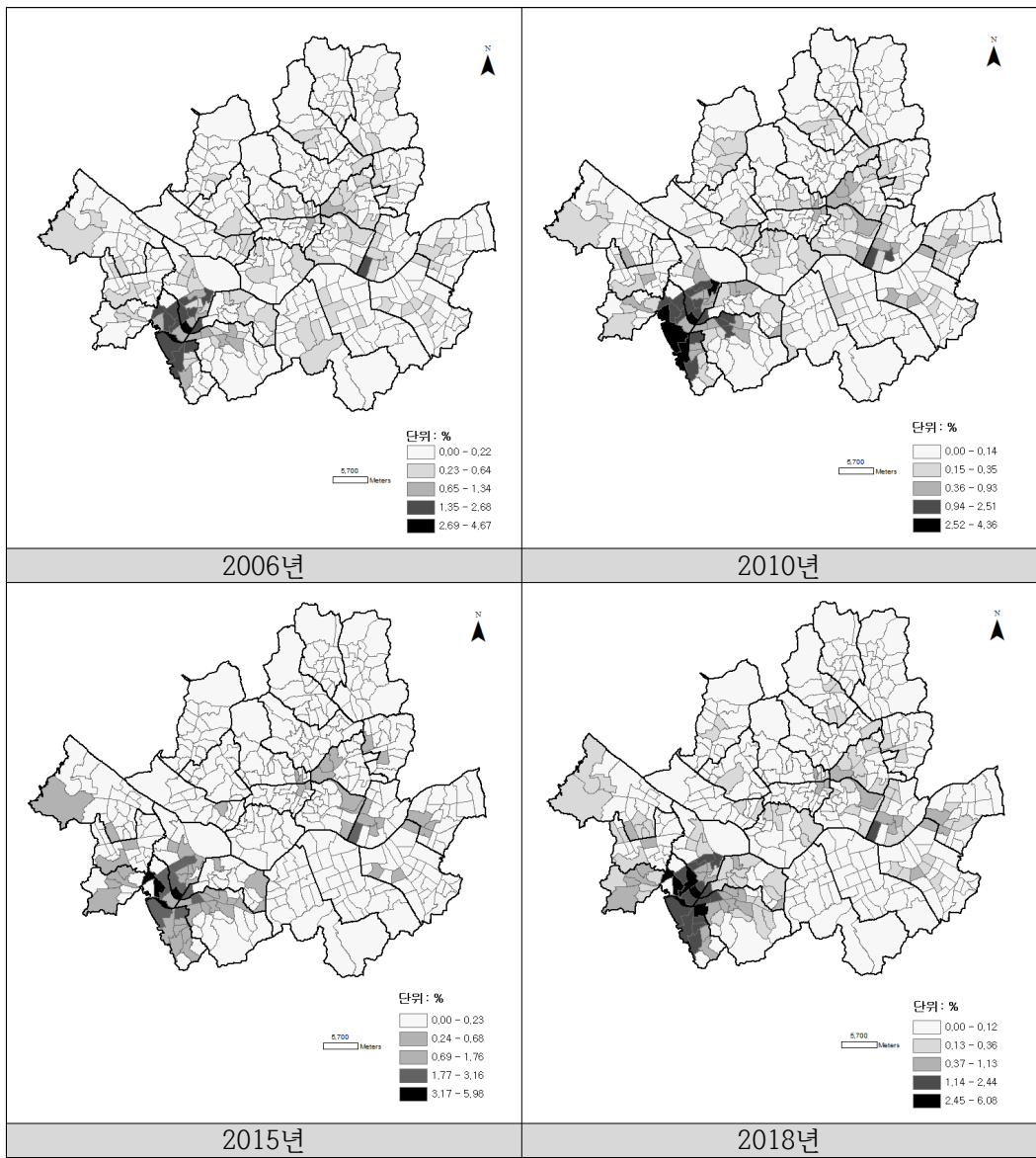
한국계중국인이 정착지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인은 일자리이다. 초기 유입 한국계중국인들은 적합한 노동수요가 나타나는 지역과 접근이 용이한 곳에 주로 자리를 잡았다. 또한 단기간 최대수익을 버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주거선택에 있어서 주거의 질보다 가격이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끼친다(이석준, 2014). 가리봉동, 대림2동, 자양4동을 포함한 한국계중국인 밀집지역의 연도별 입지계수 변화를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한국계중국인은 2006년 서울시에 산발적으로 집중분포 및 특화되어있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부지역에 국한하여 밀집지역을 형성했다. 둘째, 한국계중국인 밀집지역으로 특화된 지역은 서울의 중심이 아닌 외곽지역으로 밀려나는 양상을 보인다. 셋째, 기존 한국계중국인들의 대표적인 밀집지역을 구로구, 영등포구 등 서울 서남부지역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2018년 최신자료를 통해 입지계수를 확인한 결과 송파구, 강동구 등 서울 동남부 지역도 높은 입지계수를 가진 지역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한국계중국인의 절대적인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 전체대비동별 한국계중국인 비중을 고찰하였다(그림9). 그 결과 가리봉동과 대림2동을 비롯한 서울 서남부지역, 광진구 자양4동은 2006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계중국인의 절대적인 비중이 꾸준히 높은 지역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서울 동남부 지역의 비율이 눈에 띄게 두드러지지 않았으나 전반적으로 한국계중국인의 절대적인 분포는 앞서 입지계수로 고찰된 상대적인 분포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림 8> 서울시 동별 한국계중국인 입지계수

자료: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그림 9> 서울시 동별 한국계중국인 비중

자료: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2) 상이지수 분석

한국계중국인의 거주지 격리정도를 탐색하기 위해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송파구의 상이지수를 분석했다. 위 지역은 각 연도별 입지계수³⁾ 상위15개 동(洞)을 소재한 구(區)단위 지역이다. 상이지수는 균등분포를 달성하기 위하여 소수집단을 다른 근린지역으로 재배치해야 하는 비율로 해석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수식은 다음과 같다.

$$D = \frac{1}{2} \times \sum_{i=1}^N \left| \frac{a_i}{A} - \frac{b_i}{B} \right|$$

이 때 A는 A집단의 총 인구 수를 말하며, a_i 는 i 지역 A집단의 수를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B는 B집단의 총 인구 수를, b_i 는 i 지역에 거주하는 B집단 수를 말한다. 상이지수는 완벽한 균등성을 나타내는 0에서부터 해당 집단의 완전한 격리를 나타내는 100까지의 값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상이지수 0에서 30까지는 낮은 수준의 격리, 30에서 70까지는 중간 정도의 격리, 70이상 높은 수준의 격리로 여겨진다(David H. Kaplan et al., 2014; 김학훈 외, 2016). 2006년, 2010년, 2015년, 2018년을 인구자료를 바탕으로 한 한국계중국인 주요 밀집지역의 상이지수 결과값은 다음과 같다.

<표 1> 서울시 한국계중국인 연도별 상이지수

	2006년	2010년	2015년	2018년
서울시	49.26	55.77	60.00	60.68

자료: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2010년 서울시 한국계중국인의 격리는 같은 해 미국 Los Angeles, Washington, Atlanta 지역의 흑인 격리수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2018년까지 점차 상이지수가 높아져 한국계중국인의 격리가 심화되고 있는

3) 앞서 언급된 2006년, 2010년, 2015년, 2018년 입지계수 자료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계중국인 밀집지역으로 대표되는 서울시 7개 구의 연도별 한국계 중국인 상이지수를 분석한 결과(표 2) 전반적인 추세는 2010년, 2015년 결과값이 상승했으나 2018년 소폭 하락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각 연도별 평균값은 45내외로 격리정도를 중간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며, 2010년 평균값은 46.93으로 같은 해 미국 주요도시의 흑인 거주지 분리 수준과 비교할 때 Dallas-Ft. Worth, Houston의 흑인 격리수준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로구는 각 연도별 자료를 통틀어 가장 높은 수준의 거주지 격리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천구와 관악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격리수준이 낮아지고 있는 반면 그 외 5개 지역은 2006년에 비해 2018년 격리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최근인 2018년 상이지수 결과값을 보면 가리봉동 소재지인 구로구, 대림2동 소재지인 영등포구, 자양4동 소재지인 광진구가 각 58.66, 51.89, 47.58의 결과값으로 서울시에서 한국계중국인 거주지의 격리정도가 높은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한국계중국인 대표 밀집지역의 연도별 상이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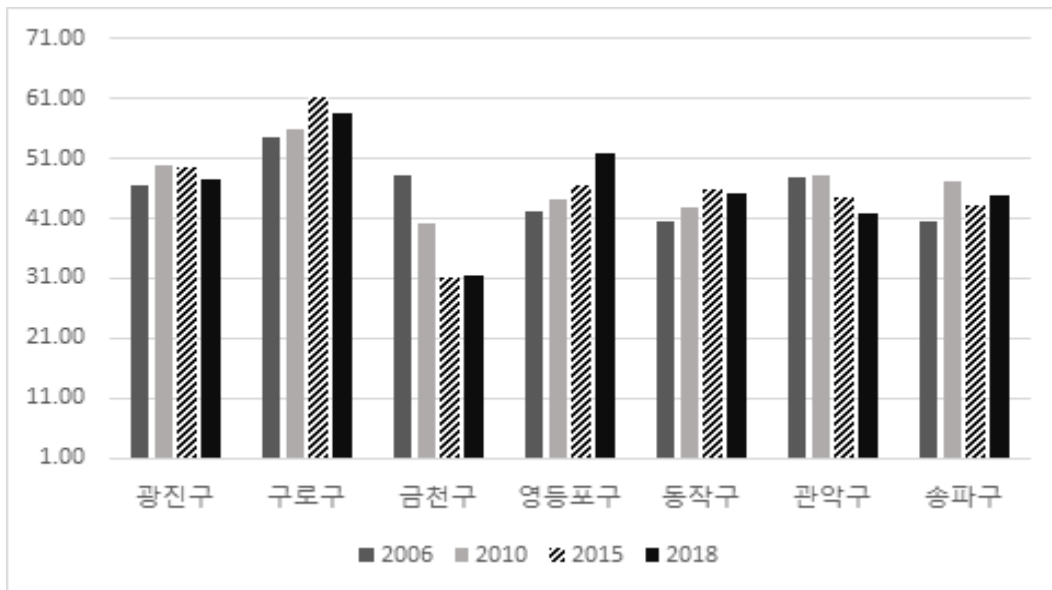
	2006년	2010년	2015년	2018년
광진구	46.43	49.91	49.64	<u>47.58</u>
구로구	<u>54.35</u>	<u>55.95</u>	<u>61.24</u>	<u>58.66</u>
금천구	48.03	40.31	31.26	31.55
영등포구	42.01	44.25	46.60	<u>51.89</u>
동작구	40.65	42.94	45.80	45.11
관악구	47.72	48.05	44.49	41.93
송파구	40.42	47.08	43.04	44.95
평균	45.66	46.93	46.01	45.95

자료: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표 3> 2010년 미국 주요도시의 흑인 거주지 상이지수

	Dissimilarity
New York, NY	64.7
Chicago, IL	71.9
Philadelphia, PA	62.6
Los Angeles, CA	54.5
Detroit, MI	73.5
Washington, D.C.	56.1
Baltimore, MD	62.2
Houston, TX	47.8
St. Louis, MO	71.0
Cleveland, OH	71.5
Atlanta, GA	54.1
Miami, FL	58.1
Dallas-Ft. Worth, TX	47.5

자료: US Census (2010)



<그림 14> 한국계중국인 대표 밀집지역의 연도별 상이지수 변화

2. 한국계중국인 밀집지역의 발전단계

1) 초기정착지 가리봉동

구로구는 구로공단에 인접하여 제조업 노동수요가 존재했으며 구체적으로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까지 구로공단 1단지 아파트 건설 등 건설인력 수요가 있었다. 게다가 지하철 1, 7호선을 통해 경기 서남부와 강남으로의 접근성이 좋아 한국계중국인 일자리 수급에 용이했다.

과거 구로공단 노동자의 주거수요가 증가하면서 가리봉동에 집단거주지인 ‘쪽방’이 만들어졌다. 구로공단 노동자들의 주거지로 사용되던 쪽방촌, 일명 ‘별집’은 1990년대 노동자 수 감소와 함께 슬럼화되었고, 건설 및 일용직 노동자였던 한국계중국인들에게 저렴한 주거공급을 가능하게 했다(이용균, 2013). 한국계중국인 거주형태는 가족 및 친족 네트워크를 위한 공간이 아닌 개인의 일용직 노동을 위한 생존의 공간이다. 별집이라 불리는 쪽방은 대부분 반지하 혹은 1, 2층에 협소하게 마련된 공간으로 취사 및 샤워시설은 별도의 야외 공용공간에 마련되어 있었다. 이렇게 열악한 조건을 가진 별집 주거자의 대부분은 한국계중국인 이주노동자들이다.



<그림 15> 가리봉동 쪽방촌(별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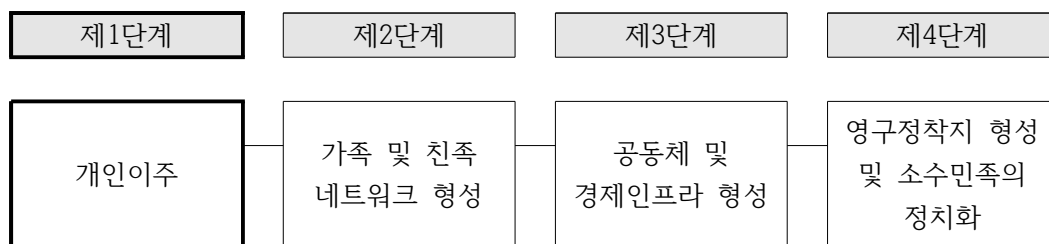
<그림 16> 쪽방(별집) 내부

상업시설의 경우 유흥 및 음식업이 두드러진다. 공휴일 점심시간에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는 한산했다. 대림동은 가족 거주자가 생활에 필요한 각종 재화를 소비하는 적극적인 주요 소비층인 것과 달리 가리봉동의 소비층은 비교적 소규모이다. 방성훈 외(2012)에 의하면 가리봉동은 단기체류를 목적으로 하는 한국계중국인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입이 적으며, 한국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가리봉동은 중국본토의 음식점,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유흥시설 등의 수요가 다른 상권에 비해 두드러진다. 가리봉동의 중심에는 전통시장인 가리봉시장이 위치한다. 가리봉시장을 중심으로 한 한국계중국인 밀집지역은 2000년대부터 시작된 개발계획에 의해 대규모 개발을 앞둔 한시적인 한국계중국인 밀집 주거공간으로 인식되어왔으며, 실제 대부분의 건물이 노후하여 도시경관을 해치고 치안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되어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꺼리기도 한다. 이 지역은 2003년 11월 균형발전 촉진지구로 지정되었고, 2005년에는 도시환경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다. 2008년 재정비 촉진지구로 전환되어 2016년에는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가리봉동 123번지 일대가 ‘가리봉동 우마길 문화거리’로 재정비되었다. 가리봉동 우마길 문화거리는 재개발사업으로 가로경관이나 전통시장이 비교적 쾌적하게 잘 정돈되어 있는데 비하여 주거지역의 주택은 노후한 것들이 많다.

가리봉동의 지역적 특성은 첫째, ‘벌집’이라는 독특한 주거형태로 한국계중국인 초기정착에 저렴한 거주지를 제공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둘째, 구로공단과 인접한 지역으로 제조업 및 3D업종 일자리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구로산업단지 첨단화 사업으로 인한 디지털산업단지 건설의 움직임이 있었기에 한국계중국인으로 하여금 건설업 노동자로 취업의 기회가 제공되었다. 마지막으로 지하철 1호선, 7호선이 인접해있어 경인지역과 강남으로의 이동이 편리하다(이석준, 2014). 가리봉동은 한국계중국인이 경제활동을 위해 임

시로 정착한 곳이며, 가족 및 친족과 공동체를 형성하지 않은 채 개인단위로 이주하여 쪽방에 거주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으로 미루어보아 가리봉동은 에스닉 엔클레이브 발전 단계 중 개인이주, 제 1단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식품을 파는 소매업자A사장은 본래 단기체류를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했으나 경제적인 이유로 11년째 거주하게 되었다고 한다. 한국에서 본인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가족들은 모두 중국 길림성에 거주하고 있으며, 사업 때문에 혼자 가리봉동에 거주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에 남아있는 이유는 중국에서 생계를 꾸리고 있는 가족들과 대학에 다니는 자녀를 위한 경제활동 때문이라고 하는데, 자녀교육이 끝나면 다시 중국 길림성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한다.



<그림 17> 에스닉 엔클레이브 발전단계: 가리봉동

자료: 박세훈 외(2009)재구성

2) 삶과 문화의 통로 대림2동

영등포구는 구로공단 인근에 위치하여 제조업 노동 수요가 있었으며 지하철 2, 7호선을 통해 서울 전역으로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이다. 특히 강남으로의 이동이 편리하다는 특징이 있다. 1980년대 중반부터 가리봉동에 인접한 대림중앙시장에 중국 물품을 판매하는 잡화점이 처음으로 생겨나면서 시장 입구에 한국계중국인을 위한 상권이 만들어졌다. 한국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현지 중국물품을 판매하는 잡화점이 있었으며, 1990년대 후반 한국계중국인이 급속하게 유입되며 대림동 내에 중국 이주민 거주지가 형성되었고, 이로 인해 잡화점 주변으로 한국계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중국음식점이 생겨나기 시작했다(이용균, 2013). 대림2동의 전통시장인 대림중앙시장은 한국계중국인들이 거주하기 전부터 원주민인 한국인상인들로 이루어진 공간이다. 그러나 한국계중국인들이 거주하기 시작하면서 대림중앙시장을 주변으로 중국문화거리가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지금은 대림중앙시장까지 이주자들이 상업공간을 차지하고 있다. 대림2동은 가족단위로 완전히 이주해 온 한국계중국인들에게 제2의 고향인 셈이다.

“여기는 볼거리는 별로 없고 음식점이 진짜 많지. 내가 9년 전에 가게 자리가 나서 왔는데, 가리봉이 재개발을 한다고 해서 조선족들이 다들 여기로 왔어. 그런데 가리봉동이 재개발을 안 해버리니까 그냥 여기서 죽치고 살게 된 거지.”

- 편의점 사업자(한국인, 사업장 운영 9년차)

대림2동은 가리봉동에서 확장된 한국계중국인의 거주공간인데, 가리봉동의 거주환경보다 나은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한국계중국인들이 이동하는 장소이다. 가리봉동의 벌집 주거형태와 달리 다세대주택에 가족단위로 거주할 수 있으며, 반지하 방을 중심으로 저렴한 주거확보가 가능하다. 대림2동은 한국계중국인들이 가족 및 친척단위로 네트워크를 이루며 살고 있다. 한국계중국인 자녀의 교육기관 재학생 수를 통해 그들이 가족단위로 거주형태를 구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위치한 **대동초등학교**

교의 올해 신입생 72명 전원은 다문화 학생이다. 신입생 전원이 다문화 학생으로 구성된 건 대동초가 서울에서는 첫 사례다. 지난해 입학 학생 73명 중 50.7%인 37명이었던 다문화 학생은 1년 만에 100% 늘었다.

대동초는 지난해 기준 전교생 487명 중 304명(62.4%)이 다문화 학생일 정도로 원래 다문화 학생 비율이 높은 곳이다. 중국 동포들 사이에서 이른바 ‘명문 학교’로 입소문이 나 있다고 한다. ‘다문화 예비학교’로 지정된 이곳은 중국 학생이 많아 적응하기 쉽다는 이유에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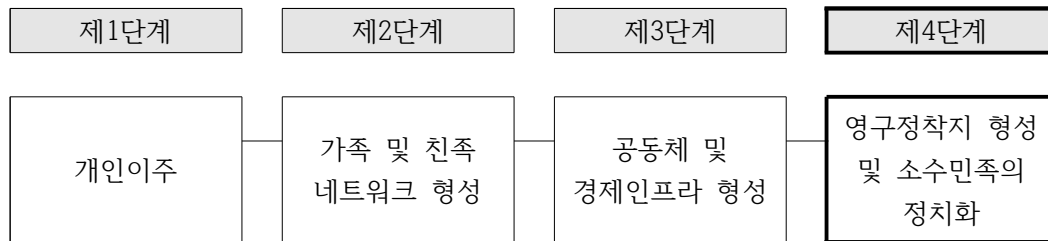
자료: “신입생 전원 ‘다문화 학생’인 대림동 초등학교…서울 첫 사례”, 중앙일보, 2018.10.02., <<https://news.joins.com/article/23014898>>

(접속일: 2019.11.15.)

대림동의 한국계중국인 집단은 지배집단인 한국의 정치·경제 조직에 대응하여 이주민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고자 단체를 조직하기도 한다. ‘조선족 이주민 협회’, ‘귀환 동포연합회’ 등을 통해 활동하고 있으며 관할 행정기관에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거나, 기부행동을 통해 편견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대림2동은 한국계중국인들이 친인척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국인들의 전통 시장에 침입하여 한국인 상인들과 상업공간에 공존하며 경제 인프라를 구성하고 있다. 대림2동의 한국인 상인들은 30년 이상 대림동에서 거주하며 사업을 해온 노인들이다. 수십 년 전부터 해 오던 상가를 운영하고 있으나 한국계중국인들이 공간을 점유하기 시작하면서 중국문화로 특화된 상권에 적응하지 못해 지역이 활성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누리지는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조선족 이주민 협회’, ‘귀환 동포연합회’ 등 단체를 조직하여 정치 및 행정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점에서 대림2동은 엔클레이브의

4번째 단계에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8> 에스닉 엔클레이브 발전단계: 대림2동

자료: 박세훈 외(2009)재구성



<그림 19> 중국 귀한동포 총 연합회



<그림 20> 대림2동 거리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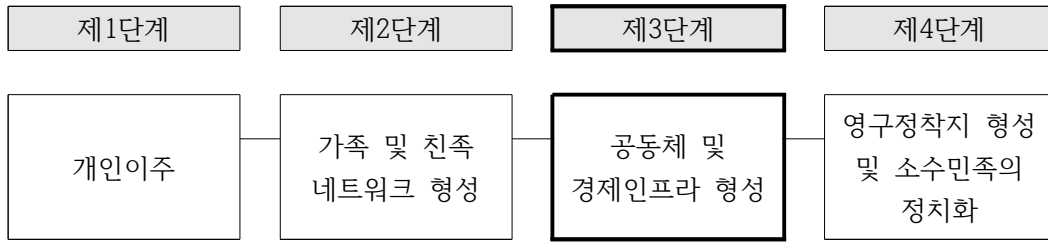
3) 다양한 소비층이 혼재된 자양4동

광진구 자양4동은 지하철 2, 7호선을 통해 서울 전역으로 이동하기가 편리하다. 특히 서울의 동북부 지역과 강남으로 일자리 접근성이 좋으며, 지하철 뿐만 아니라 다른 대중교통까지 용이해 서울 전역에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자양동은 과거 소규모 제조업 공장이 밀집한 성수공단 등의 노동수요가 있는 지역이었다. 자양4동에서 30년 이상 부동산중개업을 해 온 공인중개사에 의하면 “○○회관”, “△△궁전”과 같은 대형 중국음식점은 과거 운영했던 소규모공장을 개조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는 곳이라고 한다. ‘양꼬치 거리’라고 불리는 자양동 동일로 18길 주변은 건국대학교, 쇼핑센터, 지하철 2, 7호선, 고급 아파트, 노후주택, 소규모 공장이 산발적으로 위치해 있었다. 저렴한 노후주택이 밀집되어 중·단기체류를 원하는 이주자들의 거주에 용이했고, 성수동의 공장지역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으며, 서울의 다른 곳과 교통이 편리하기도 했다. 현재 양꼬치 거리로 불리는 동일로 18길 주변지역은 1980년대부터 중소규모 공장을 대상으로 한 식당이 밀집된 곳이었으나 공장이 사회·경제적 이유로 폐업하면서 문을 닫기 시작했다. 비교적 큰 식당들은 중국인이 인수하기 시작하면서 한국계중국인 식당이 자양동에 입지하기 시작했다(이용균, 2013).

2012년을 기준으로 자양동 동일로 18길의 200여개 상가 중 60개가 조선족이 운영하는 사업시설이었으며 이에 따라 광진구 차원에서 이곳을 중국음식 문화거리로 지정하면서 ‘양꼬치 거리’로 불리게 되었다. 양꼬치 거리가 형성된 동일로 18길은 ‘건대 맛의 거리’, ‘건대 로테오거리’와 인접한 상권으로 유동인구가 많고 젊은 한국인 소비자가 접근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 한국계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권과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권이 구분되어 있고, 타 지역에 비해 양꼬치를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의 비중이 높다. 음식

점의 경우 한국인과 한국계중국인의 메뉴도 구분되어 있다. 자양4동의 양꼬치 거리 지역은 교육시설과 대학시설이 인접해 있어 한국계중국인 뿐만 아니라 중국인, 기타 아시아인도 지역의 구성원이라는 점이 특징적이다. 또한 인근 채래시장인 노론산 골목시장은 한국인을 중심으로 한 상업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자양4동의 한국계중국인들은 ‘조선족 상인위원회’, ‘중국동포번영회’를 구성하여 주민화합을 위해 기부 및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중국동포번영회는 자양종합사회복지관에서 배식 및 설거지 봉사를 실시하는 한편, 독거노인을 초청하여 중국이색음식을 대접하고 쌀 등을 기부하는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자양4동은 대림2동에 비해 인구규모는 작지만 교통과 일자리의 이점에 있어서 한국계중국인들이 거주하기 좋은 지역이다. 가리봉동이 한국계중국인의 초기 정착지였다면 자양4동은 경기도, 인천 등을 거쳐 한국사회에 적응하고 경제적 여유를 가진 동포들이 서울에 진입한 공간이다. 그들은 주거, 상업, 문화 등의 부문에서 한국인과 한국문화에 비교적 쉽게 노출되어 있다. 특히 광진구차원에서 지정한 ‘양꼬치 거리’의 조성은 한국계중국인이 자생적으로 만든 상권이 아니라는 점이 특징적이다. 자양4동은 한국계중국인들로 구성된 공동체 조직과 건대상권의 혜택을 이용한 경제인프라를 형성했지만 ‘양꼬치 거리’라는 정체성을 형성한 주체가 지자체 차원이었다는 점, 정치·사회적으로 개척이 아닌 순응과 화합의 입장을 취한다는 점에서 엔클레이브 발전단계의 성숙한 3단계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1> 에스닉 엔클레이브 발전단계: 자양4동

자료: 박세훈 외(2009)재구성

이상, 구로구 가리봉동과 영등포구 대림2동, 광진구 자양4동의 한국계중국인 밀집지역 형성과정과 에스닉 엔클레이브 발전단계에 대한 논의의 요약하면 다음 표4와 같다.

<표 4> 서울시 한국계중국인 밀집지역 비교

	구로구 가리봉동	영등포구 대림2동	광진구 자양4동
교통	지하철1, 7호선	지하철 2, 7호선	지하철 2, 7호선
배후지	가리봉재래시장, 구로공단	대림중앙시장, 가리봉 재개발지역, 강남 접근성 좋음	성수공단, 건대 로데오거리, 조양시장, 서울 동북부 및 강남 접근성 좋음
주거형태	쪽방(벌집)	다세대 주택, 반지하	노후주택, 아파트
이주형태	개인	가족, 친척 등 인적 네트워크 형성 (이주민협회, 동포연합회 등 운영)	가족, 친척 등 인적 네트워크 형성 (조선족 상인위원회, 중국동포번영회)
체류기간	단기체류	장기체류 및 사업운영	장기체류 및 사업운영
에스닉 엔클레이브 단계	1단계	4단계	3단계 (지자체에 의한 상권형성)

IV. 한국계중국인 밀집지역의 소비공간화

본 연구는 한국계중국인 밀집지역의 소비공간을 분석하기 위하여 응답자의 개인적인 특성, 한국계중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방문목적, 방문계기, 정보수집 방법, 만족도 등에 대한 방문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조사를 통해 대림2동 57부와 자양4동 29부, 전체 86부의 유효응답을 얻었다. 설문의 표본은 편의추출에 의해 수집되었다.

경제총조사에 따르면 가리봉동은 지난 2010년에 비해 2015년 숙박 및 음식점점 사업체수가 260개에서 257개로 1.2% 감소했으며, 종사자수는 499명에서 441명으로 1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리봉동의 합계 매출액은 120억에서 157억으로 30% 소폭 상승했으나 대림2동, 자양4동의 매출액이 평균 130%이상 증가한 것과 비교할 때, 젠트리피케이션을 통한 소비공간화가 진행되거나 한국계중국인 밀집지역을 대표하는 상권이라고 판단하기에 무리가 있어 방문자 및 사업자 설문조사 대상지역에서 가리봉동을 제외하였다(표 5, 표 6).

<표 5> 숙박 및 음식점업 시기별 현황

(단위: 개, 명, 백만원)

항목	연도	가리봉동	대림2동	자양4동
사업체수	2010	260	312	389
	2015	257	348	439
종사자수	2010	499	646	890
	2015	441	852	1,268
매출액	2010	12,071	20,175	31,431
	2015	15,729	47,986	71,661
임대료	2010	1,375	2,473	4,171
	2015	2,368	4,519	8,510
영업이익	2010	3,274	6,183	8,513
	2015	3,857	7,974	11,658

자료: 통계청 경제총조사

<표 6> 숙박 및 음식점업 항목별 증감율(2010-2015)

(단위: %)

항목	가리봉동	대림2동	자양4동
사업체수	-1.2	11.5	12.9
종사자수	-11.6	31.9	42.5
매출액	30.3	137.8	128.0
임대료	72.2	82.7	104.0
영업이익	17.8	29.0	36.9

자료: 통계청 경제총조사

1. 사업자 인터뷰를 통한 소비공간화 분석

1) 입지요인

2003년 11월 가리봉동이 균형발전 촉진지구로 지정되면서 가리봉동에 거주하던 한국계중국인들이 인근지역으로 옮겨가게 되었는데, 대림2동은 가리봉동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이점이 있었다. 대림2동 사업자 인터뷰에서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사업을 목적으로 대림2동에 입지한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대림2동에서 거주하다보니 자연스럽게 대림2동에 익숙해졌고, 사업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렇게 한국계중국인에 의해 형성된 상권은 중국스러운 경관을 보이게 되었고, 소비자로서 하여금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그 결과 통계적으로 대림2동의 사업체수는 2010년 대비 2015년 312개 업소에서 348개 업소로 11.5%증가했다. 종사자수는 31.9%로 206명이 증가했으며, 매출액은 약 13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료는 82.7%가 증가했는데, 지역의 유동인구가 증가하고 상권이 활성화됨에 따라 임대료가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표5, 표6).

“나는 원래 신림동에서 장사했었는데 우연히 여기에 가게가 나와서 사업을 하게 됐지. 내가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중국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았고, 중국식당도 별로 없었어. 중국사람이 가리봉동, 구로동에서 넘어왔어. 가리봉동이 재개발을 한다고 해서 다 넘어온거지. 그래서 다들 여기서 살고 장사하게 된거지. 대림역 12번 출구 입구에서부터 다 조선족들 가게야.”

- 대림2동 사업자(편의점 운영 9년 차)

“여기서 생활을 하다보니까 여기서 사업을 하게 됐지. 처음에는 다 건

설현장에서 일했지 아니면 중국에서 하던 일을 한국에서도 할 수 있는 곳을 찾아다니니까. 원래 하던 사업이니까, 중국 음식점을 했으니까 본업을 유지하려고 하지. 처음 대림에서 여행사 일을 했는데 출근하고 다니다 보니까 대림이 괜찮은 것 같아서 통신업을 개업해서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지.”

- 대림2동 사업자(통신업 운영 10년 차)

“여기 건물주인들은 다 한국인이지. 여기 대림동이 중국동포가 많이 살면서 시장이 활발해졌어. 그런데 이제는 집주인이고 건물주인들이 5년 계약이 끝나니까 이제 임대료를 올리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 우리 동포들이 부천이고 인천이고 이런 경기도로 많이들 가고 있어.”

- 전국귀한동포총연합회 관계자(길림성출신 한국계중국인, 한국거주14년차)

자양4동은 과거 성수동 공장지역의 탈 산업화과정에서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지를 제공했고, 이에 한국계중국인들이 저렴한 주거지와 편리한 교통, 일거리의 기회를 찾아 자양4동에 거주하기 시작했다. 초기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음식점을 비롯한 중국문화를 기반으로 한 생활밀착형 서비스가 지역의 상권이었으나, 자양4동의 한국계중국인 거주자가 증가하고 건국대학교 주변 상권과 인접한 이점으로 한족, 한국인 소비자가 증가하여 중국음식문화를 테마로 한 상업지역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건대 맛의 거리’, ‘건대 로테오거리’와 인접하여 ‘양꼬치 거리’라고 불리며 중국음식에서도 양꼬치로 특화된 상권을 가지고 있다. 자양4동은 교통이 편리하고 서울의 중심과 가까운 지역으로 다른 한국계중국인 엔클레이브지역과 비교했을 때 임대료가 가장 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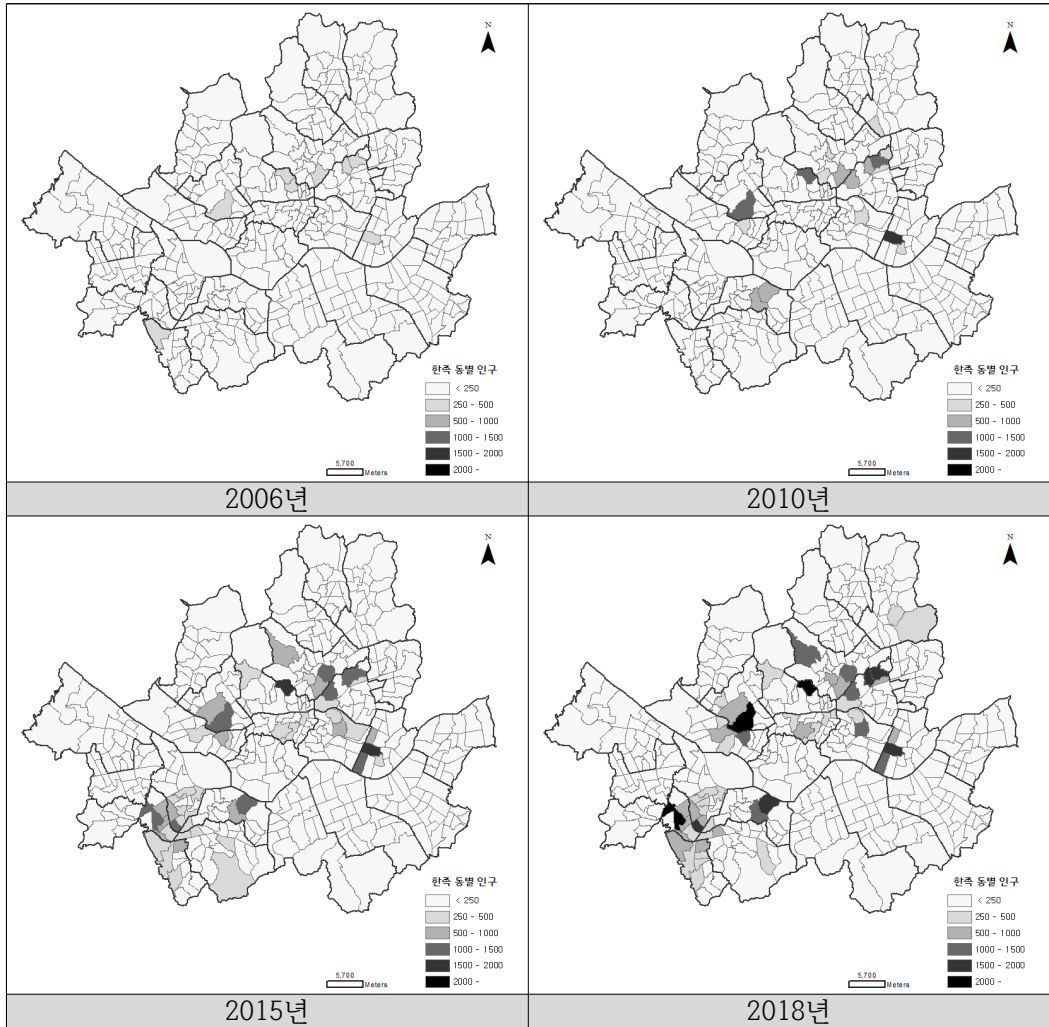
은 지역이다. 건국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자양4동의 중국음식문화거리는 주로 인근 한국인직장인들과 중국유학생을 대상으로 소비가 이루어지는데, 숙박 및 음식점의 경우, 대림동에 비해 사업체수가 91개 정도 많으며, 매출액은 대림2동의 약1.5배에 달한다.

이러한 자양4동 상권의 배후에는 한족 중국인들의 영향이 크다. 한족들은 2006년 건국대학교 소재지인 광진구 화양동과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소재지인 서대문구 신촌동에 가장 많이 거주했다(표 6). 2010년과 2015년에는 화양동과 혜화동에, 2018년에는 신촌동과 구로2동에 가장 각각 2488명, 2434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한족집단과 인근 직장인들이 자양4동의 주요 소비층이 되면서 대림2동 같은 큰 경제규모를 갖게 된 것이다. 그러나 주요 고객이 다양한 만큼 사업자 또한 한국인, 한족, 한국계중국인들이 섞여있기 때문에 대림2동만큼 생활밀착형 상권이 형성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중국음식 특화거리로 지정된 만큼 가리봉동, 대림2동과 비교하여 음식점 수가 가장 많고 종사자 수 또한 가장 두드러진다는 것이 특징이다.

<표 6> 연도별 서울시 한족 인구 상위 5개 동

순번	2006년	2010년	2015년	2018년
1	화양동(456명)	화양동(1567명)	화양동(1842명)	신촌동(2488명)
2	신촌동(438명)	혜화동(1331명)	혜화동(1674명)	구로2동(2434명)
3	회기동(390명)	이문1동(1097명)	신촌동(1495명)	혜화동(2361명)
4	혜화동(377명)	신촌동(1025명)	이문1동(1455명)	이문1동(1867명)
5	안암동(373명)	흑석동(823명)	흑석동(1410명)	화양동(1776명)

자료: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그림 22> 서울시 한족(漢族) 중국인 거주인구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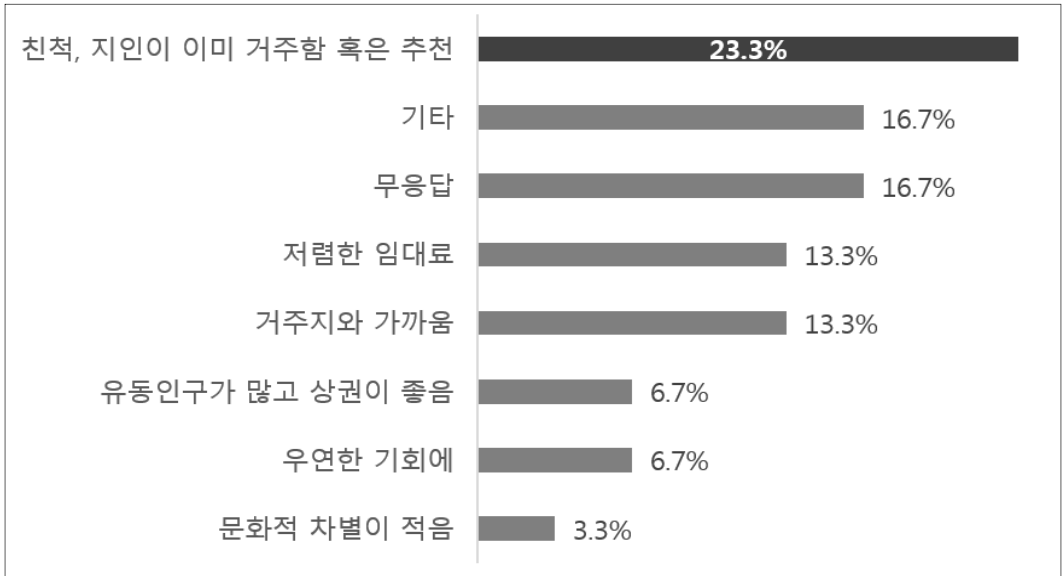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단위: 명)

한편, 대림2동 인터뷰 응답자 57명 중 방문자 47명을 제외한 10명의 사업자 인터뷰를 보면, 사업을 운영하기로 했을 때 대림2동에 입지하게 된 요인 세 가지를 질문한 결과, 응답자 중 23.3%가 지인이 대림2동에서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입지했다고 응답했다. 그 다음으로 16.7%를 차지하는 기타 응답은 남편의 일자리와 가까운 곳이 대림2동이었고, 개인적으로 익숙한 지역에서의 사업을 희망하다 보니 대림2동이 익숙한 지역이라고 생각해 입지하게 되었다고 응답했다. 저렴한 임대료와 거주지와 근접성 때문에 입지했다는 응답은 각각 13.3%를 차지했다. 유동인구가 많고 상권이 좋기 때문에 입지했다는 응답자는 6.7%로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차지했다. 문화적 차별이 적기 때문에 대림2동에 입지했다는 응답은 3.3%로 가장 적었는데, 이는 사업자들이 인적네트워크를 통해 입지하기 때문에 이미 문화적 차별에 대한 고려가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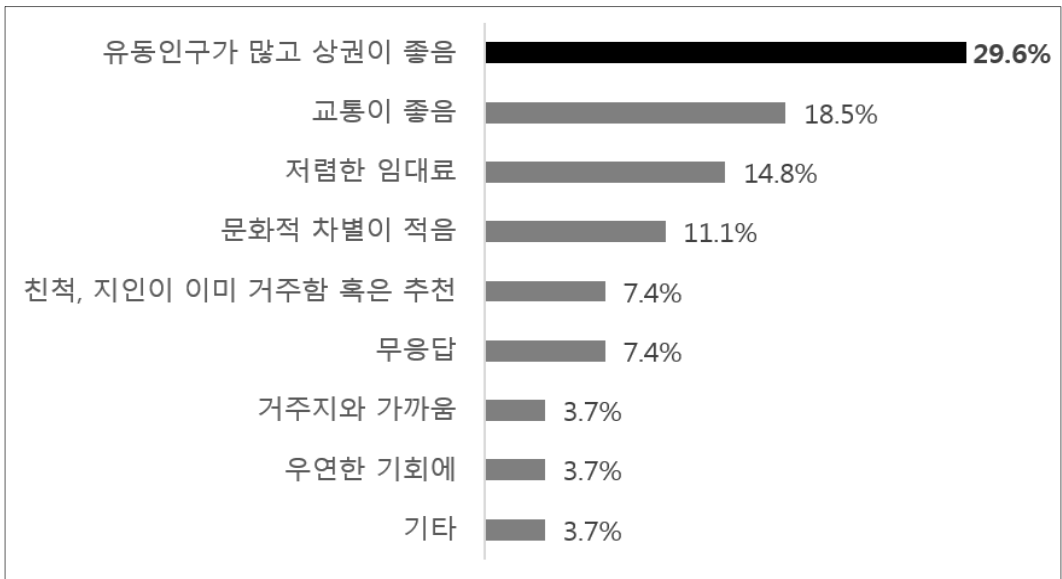
자양4동 인터뷰 응답자 29명 중 방문자 20명을 제외한 9명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인터뷰 한 결과 응답자의 29.6%는 자양4동이 유동인구가 많고 상권이 좋기 때문에 입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5%는 해당 지역의 교통 접근성을 입지요인으로 꼽았으며, 14.8%는 저렴한 임대료를, 11.1%는 문화적 차별이 적음을 입지요인으로 꼽았다. 지인의 추천에 의해 사업장 입지를 고려했다는 응답과 무응답은 각각 7.4%를 차지했으며, 거주지와 가깝기 때문에 입지했다는 응답과 우연한 기회에 입지했다는 응답은 각각 3.7%로 가장 적은 비율을 차지했다.

결과적으로 대림2동은 지인이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입지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유동인구와 상권이 좋기 때문에 입지했다는 응답은 비교적 적었다. 반면, 자양4동은 유동인구가 많고 상권이 좋기 때문에 입지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지인의 추천에 의해 사업장 입지를 고려했다는 응답은 적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대림2동이 한국계중

국인 엔클레이브를 형성할 때 주거지를 먼저 형성한 후, 거주민을 위한 상권이 만들어지고 활성화됐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자양4동은 건국대학교 소재지인 화양동 상권의 배후지로서 교통의 편리함과 유동인구의 이점을 가진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림2동의 사업자들이 대부분 한국계중국인인 것과 달리 자양4동은 한국인 사업자들이 일부 존재하므로 상이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림 27> 사업자 인터뷰를 통한 대림2동 입지 요인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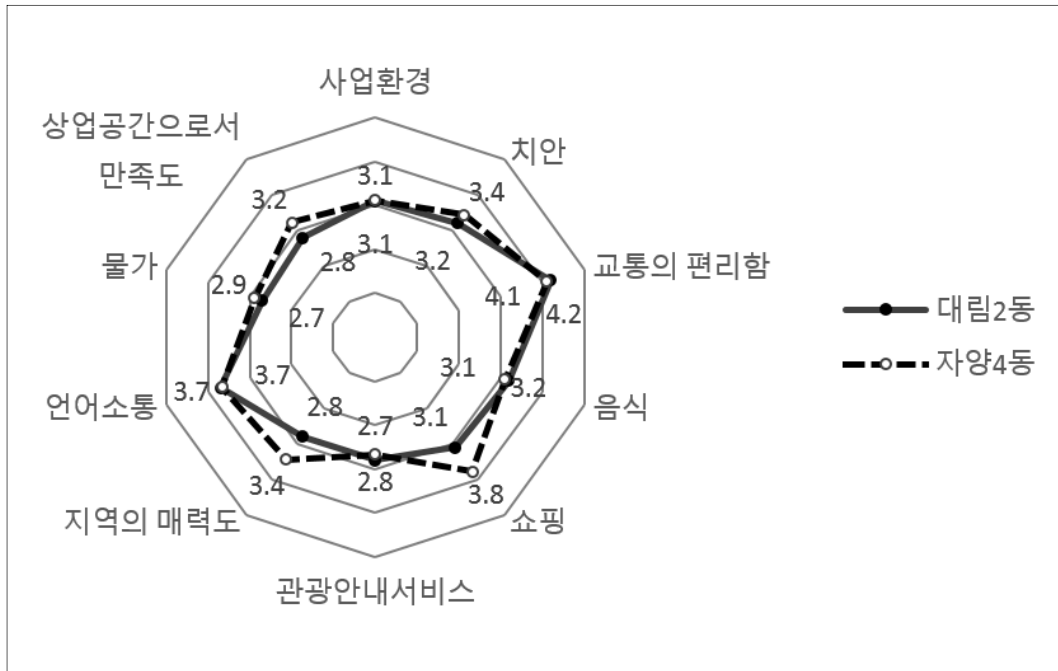
<그림 28> 사업자 인터뷰를 통한 자양4동 입지 요인 (중복응답)

2) 상업공간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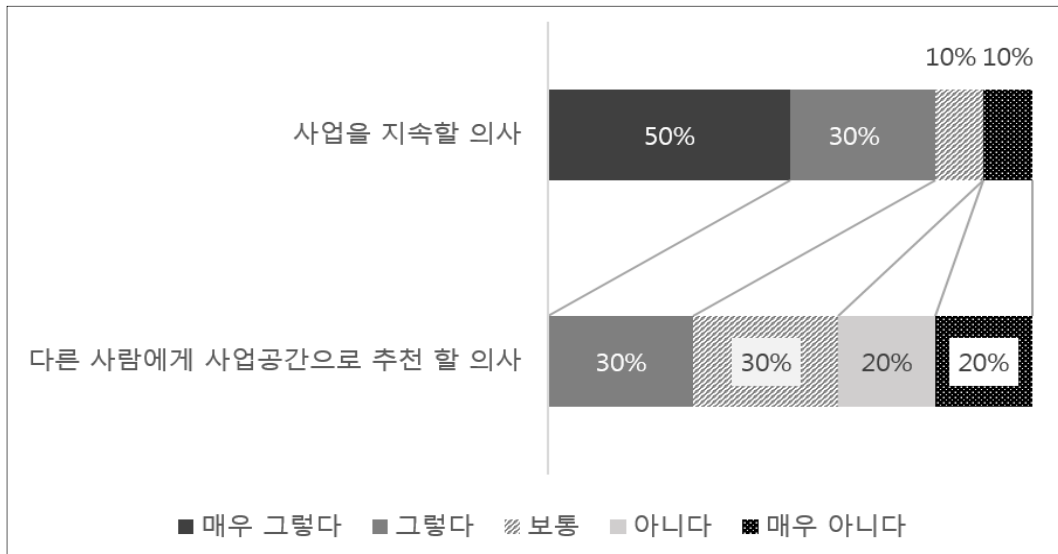
각 지역의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상업공간으로서 해당지역의 환경, 치안, 교통, 음식, 쇼핑, 관광, 매력, 언어, 물가 등에 얼마나 만족하는지 1부터 5점까지 응답을 받았다. 대림2동 사업자들은 해당 지역의 교통과 언어 소통에 각각 평균 만족도 4.2점, 3.7점으로 높은 만족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물가에 대한 평균 만족도 2.7점, 관광안내서비스에 대한 평균 만족도 2.8점, 주관적인 지역의 평균 매력도 2.8점, 전반적인 상업공간으로서 만족도 2.8점으로 보통 이하의 만족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 인터뷰에 의하면 한국인 사업자와 한국계중국인 사업자 모두 대림2동이 지금처럼 활성화되기 전 저렴한 주거비용과 사업장 임대료를 부담하며 점포를 운영했으나, 지난 7, 8년 간 상권이 활성화되고 유동인구가 많아지면서 예상하지 못한 임대료 상승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업 환경에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앞으로 사업을 지속할 의향이 있는지 인터뷰한 결과 80%의 사업자들이 자신의 연령과 전문성을 고려했을 때 사업을 계속 해나가야 한다고 응답했으나, 해당 지역을 사업공간으로 추천할 의향이 있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0%가 임대료의 상승과 한족 중국인 사업자들의 증가로 추천할 만한 사업공간은 아니라고 응답했다.

자양4동의 사업자들은 같은 질문에 자양4동 교통이 편리한 것에 대해 평균 4.1점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인근에 재래시장, 대형마트가 있기 때문에 지역이 강점을 가진다고 응답했다. 쇼핑은 평균 3.8점의 만족도를, 언어 소통은 평균 3.7점으로 대체로 만족하고 불편함이 없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주관적인 지역 매력정도와 치안에 대한 평균만족도는 3.4점으로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역에서 사업을 지속할 의사가 있는지 인터뷰 한 결과 응답자 중 77.7%가 해당 지역에서 사업을 지속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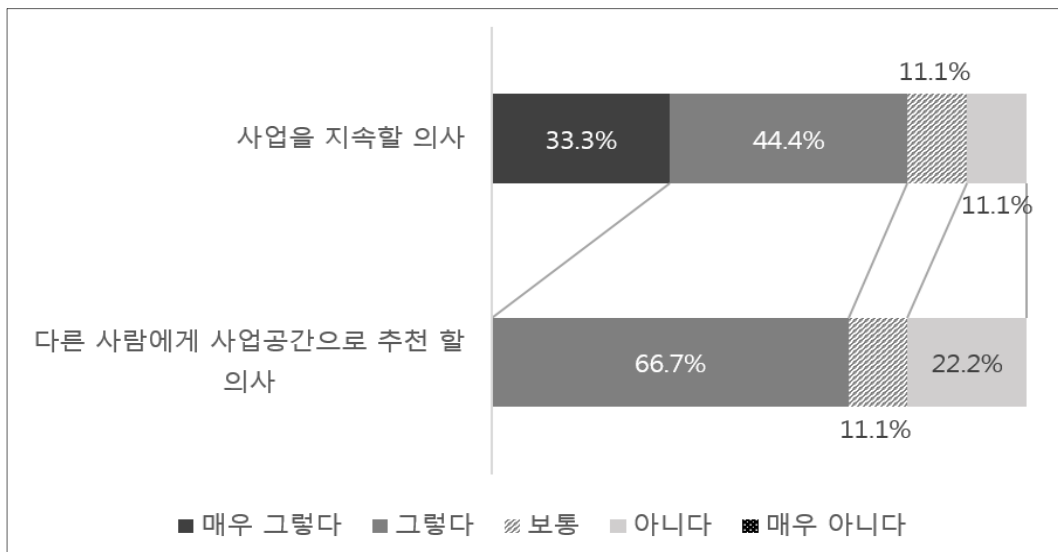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응답자의 66.7%가 사업 공간으로 해당 지역을 타인에게 추천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그림 29> 사업자 인터뷰를 통한 상권 만족도



<그림 30> 대림2동 사업자 인터뷰를 통한 사업 지속의사



<그림 31> 자양4동 사업자 인터뷰를 통한 사업 지속의사

결과적으로 자양4동은 대림2동에 비해 성숙한 엔클레이브단계에 도달하지 않았지만 광진구 차원에서 자양4동 일대를 건대 ‘양꼬치 거리’로 지정하면서 한국인과 상업공간을 공유하고 한국인 방문객들이 높은 장벽 없이 방문할 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의 사업자 인터뷰에 의하면 대림2동, 자양4동은 지하철 2호선과 7호선이 지나는 곳으로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상업공간으로서 장점을 갖는다. 또한 한국계중국인이 중국어와 한국어를 모두 구사할 수 있기 때문에 두 지역 모두 상업공간에서 언어소통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대림2동은 한국계중국인 밀집지역으로 발전하고 대표적인 중국문화거리가 조성되며 임대료상승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 사업자의 경우 중국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상권의 속성 때문에 적용에 문제가 있고, 한국계중국인 사업자는 늘어난 임대료와 한족(漢族) 자본가의 침입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양4동은 교통의 이점은 물론, 강남 접근성이 뛰어나며 쇼핑의 기회가 많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많아 사업자들이 전반적으로 상권에 만족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여기 중국동포들이 아주머니들은 식당으로, 남자 분들은 건설현장에서 일하시는데 근거리로 왔다 갔다 하니까 자전거가 필요하거든요. 대부분 연령대들이 50대 이상인데 구의, 성수, 강남 이런데는 가까워서 일하러 자전거타고 많이들 가시더라고요.”

- 자양4동 한국인 사업자 (자전거가게 운영, 사업장운영 4년차)

“동네방네 양꼬치로 소문이 나서 많이들 찾더라고요. 특히 젊은 애들이 좋아하잖아 이거, 양꼬치. 그리고 여기 교통이 진짜 좋아. 직장인들이랑 대학교 젊은이들이 대부분이야. 그리고 중국인이나 그런 외국 애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서양인들도. 여기는 먹자골목이지 먹자골목.”

- 자양4동 한국인 사업자 (미용실운영, 사업장운영 5년차)

무엇보다 한국계중국인 밀집지역은 치안이 좋지 않다는 이미지가 강한데, 자양4동 사업자들은 인터뷰에서 치안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한국인사업자는 자양4동이 다른 한국계중국인 밀집지역 중에서도 가장 안전한 지역이라고 응답하기도 했으며, 서울에서 거주지를 수차례 옮긴 경험이 있는 한국계중국인 거주자 또한 자양4동 지역을 안전하다고 말한다.

“치안이에요? 괜찮은 편이죠, 다른 조선족동네보다도 여기는 안전한 편인 것 같아요. 여기서 장사한지 7년째인데 뭐, 조선족 단골도 생기고 다들 같은 사람이잖아요.”

- 자양4동 한국인 사업자 (통신판매업자, 사업장운영 7년차)

“여기가 집값은 조금 비싼데 먹는 것도 싸고, 치안이 좋아. 내가 미아리, 종로 다 살아봤는데 그런 데랑 비교해도 안전하지. 한국에서 나는 여기가 최고인거 같아. 제일 좋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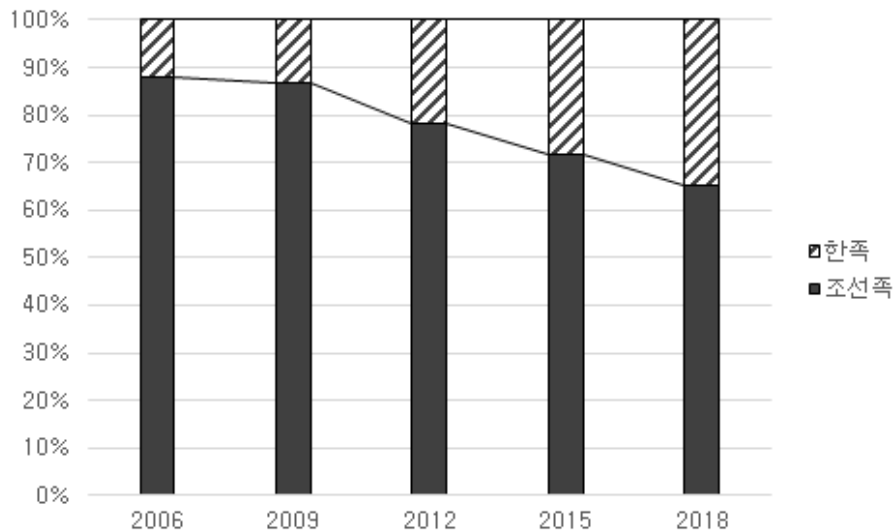
- 자양4동 한국계중국인 거주자 (연길 출신, 한국 거주 19년차)

이상, 사업자인터뷰를 통해 소비공간을 만드는 사업자가 어떤 경로에 의해 해당 지역에 입지하게 되었는지 확인하고 사업환경에 만족하는지, 지속적으로 사업을 유지할 계획이 있는지 파악하여 한국계중국인 밀집지역의 전망을 예측해 보고자 했다. 그 결과 대림2동의 사업자들은 생활공간에 자생적으로 소비공간을 만든데 비해 자양4동 사업자들은 사업을 목적으로 해당 지역에 입지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입지요인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지역의 사업자들은 각 지역에서 사업을 유지하고자 했다.

2. 소비자 인터뷰를 통한 소비공간화 분석

1) 방문요인

한국계중국인들이 개인으로 이주하여 거주하는 가리봉동은 2010년과 2015년을 비교했을 때 사업체수와 종사자수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 대림동은 한국계중국인의 서울시 이주자 수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대표적인 한국계중국인 상권이다. 이는 대림2동 상권의 고객층이 한국계중국인 뿐만 아니라 한족과 한국인까지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으로 해석되는데, 서울시에 장기간 거주하는 중국국적 등록외국인의 비율을 보면 한족 이주자들이 2012년을 기준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2> 서울시 중국계 등록외국인 비율

자료: 통계청

대림2동을 방문하면 한국계중국인 뿐만 아니라 한족 방문객 또한 쉽게 목격할 수 있다. 대림2동에서 진행한 인터뷰에 의하면 한족 중국인들은 대림2

동과 가까운 금천구, 구로구에 살고 있었다. 인천에 거주하거나 한국에 중·단기간 거주하는 한족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중국 현지음식과 중국브랜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한다. 인천에 거주하는 한족 출신 B방문자는 한국인 남편, 아들과 함께 대림동에 방문했다. 가까운 인천 차이나타운이 아닌 대림동까지 온 이유를 묻자 인천 차이나타운은 한국시장과 차이가 없다며 진짜 중국본토의 것들을 구매하려면 대림동으로 와야 한다고 말한다.

“인천에 있는 차이나타운은 음식도 다 한국식당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다들 중국에서 온 사람들이고 고향음식이 그리워서... 고향음식도 먹고 장도 보려고 거의 주말마다 가족들하고 와요.”

- 인천거주 방문객 (한족 중국인, 한국 거주 13년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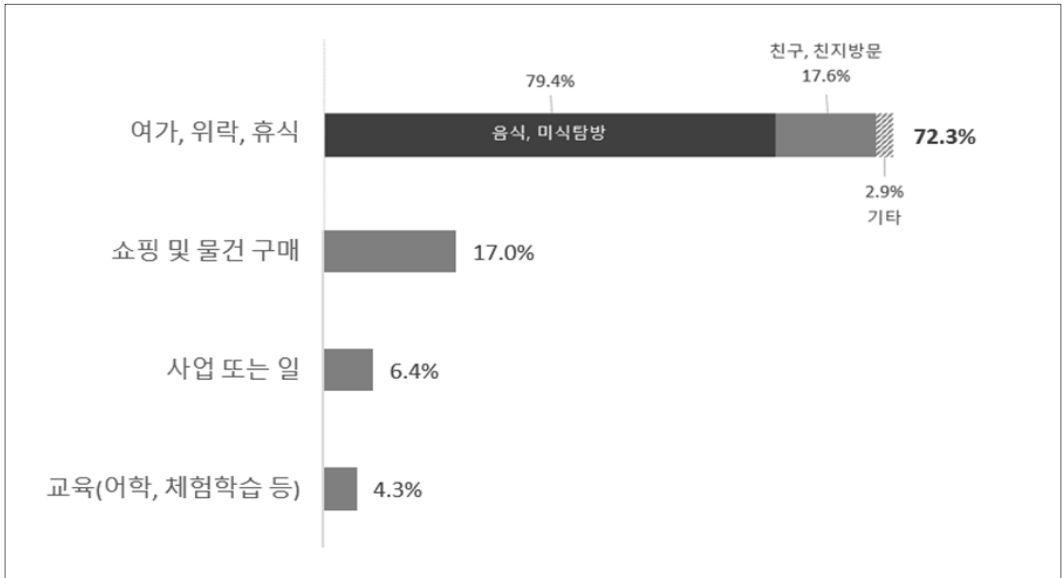
“인천은 거리만 차이나타운이지 실제로는 다 한국인들이 하잖아요. 진짜 중국인들이 하는 게 맛있거든요. 재료도 많고.. 일부러 인천에서 여기까지 와요.”

- 인천거주 방문객 (한국인, 한족 중국인과 결혼 13년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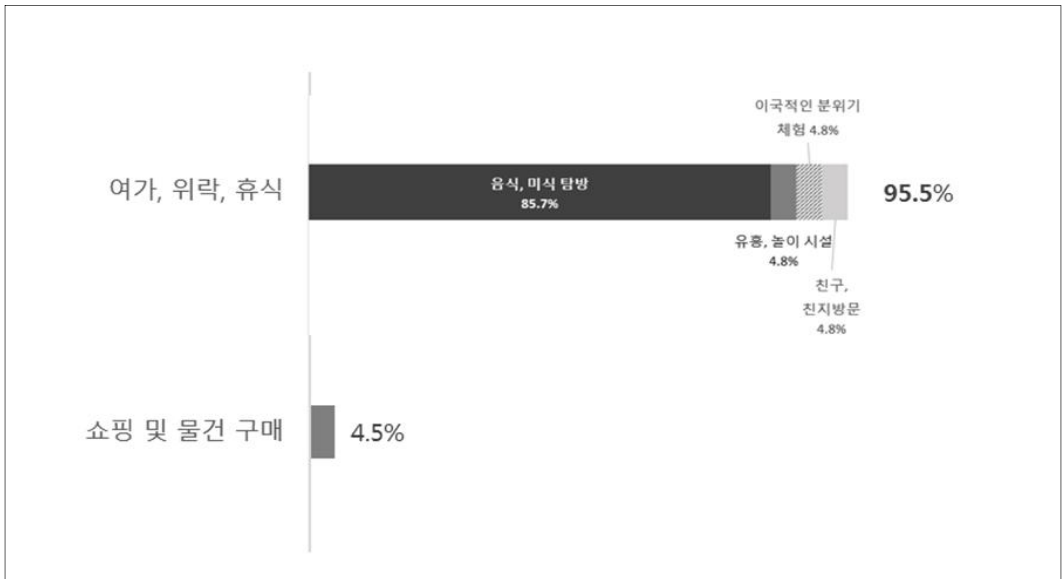
대림2동에는 중국문화에 익숙한 중국문화권 사람들만 방문하는 것이 아니다. 문화적 경관이 매우 이국적이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그동안 쉽게 방문하지는 못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최근 중국음식이나 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나 색다른 음식에 도전하고 경험해 보기 위해 방문하는 한국인 방문객들을 볼 수 있었다. 대림2동 방문객 47명을 대상으로 직접 진행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대림2동에 방문한 목적은 72%가 ‘여가, 위락, 휴식’이라고 응답했으며 17%가 쇼핑, 6.4%가 사업을 위해 방문했다고 응답했다. ‘여가, 위락, 휴식’을 목적으로 방문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세부 이유를 묻자 79.4%가 음식 및 미식탐방이 주된 목적이었으며 17.6%가 친구 및 친지 방문을 위해 대림2동에 방문했다고 응답했다.

자양4동 방문자 2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95.5%가 ‘여가, 위락, 휴식’을 위해 방문했다고 응답했다. 일부 응답자는 쇼핑 및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자양4동에 방문했다고 대답했다. ‘여가, 위락, 휴식’을 위해 방문했다는 응답 중 85.7%가 음식, 미식탐방을 위해 방문했으며 유흥 및 놀이시설을 즐기기 위해, 이국적인 분위기를 체험하기 위해, 친구 및 친지방문을 위해 방문했다는 응답이 각각 4.8%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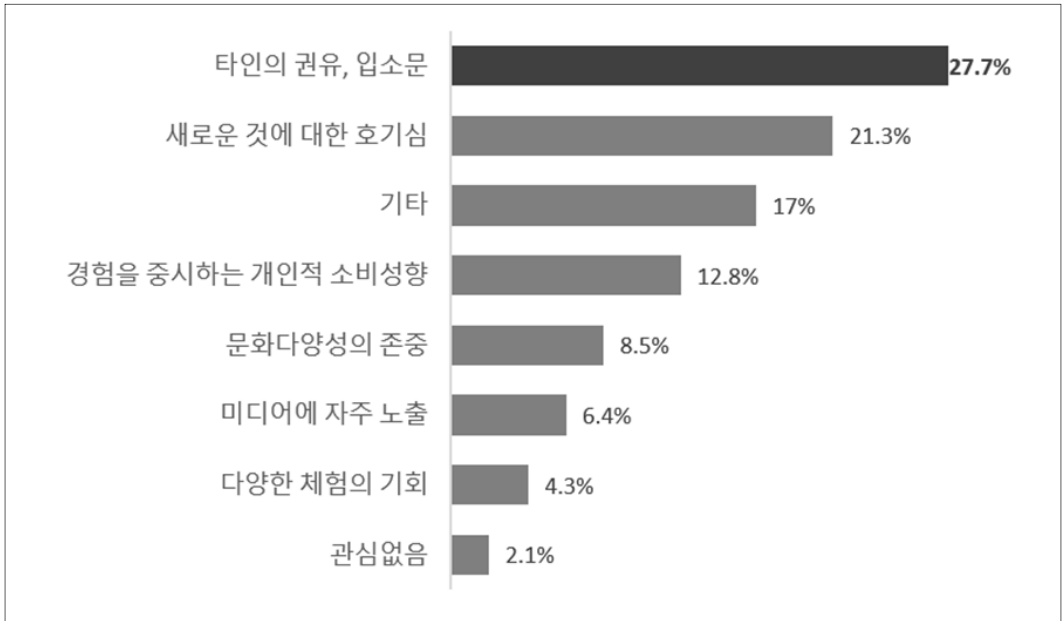
<그림 33> 방문자 인터뷰를 통한 대림2동 방문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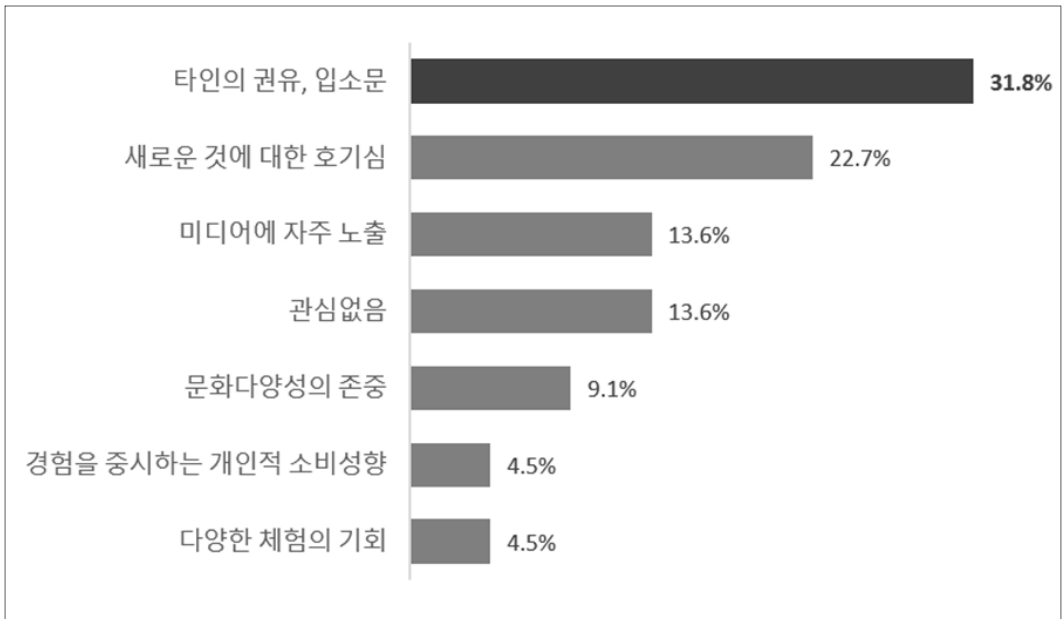
<그림 34> 방문자 인터뷰를 통한 자양4동 방문 목적

대림2동에 방문한 응답자 중 27.7%가 타인의 권유나 입소문을 통해 한국계중국인 밀집지역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응답했다. 한 응답자는 대림2동과 근접한 구로 디지털단지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인데, 회식을 하거나 퇴근 후 약속장소로 대림2동에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동료들 간에 음식점을 서로 추천해주기도 한다고 응답했다.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한국계중국인 밀집지역에 관심이 생겼다는 응답은 21.3%, 자신의 소비성향이 색다른 것을 경험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방문했다는 방문자는 12.8%를 차지했다. 응답자 중 8.5%는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기 때문에 한국계중국인 밀집지역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응답했으며, 6.4%의 응답자는 한국계중국인들의 거주지 및 상업시설이 미디어에 자주 노출되면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응답했다. 기타응답은 17%를 차지했는데, 집이랑 가깝다는 이점과 일자리를 구하기 쉽다는 이유로 다른 지역이 아닌 한국계중국인 밀집지역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경우가 있었고, 지인 및 친척이 이미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대림2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응답, 한국계 중국인 응답자는 자신들만의 문화다양성을 지키고자 대림2동을 찾아왔으며, 서울에서 대림2동이 가지는 중국문화가 좋아서 관심을 가지고 방문했다는 응답도 있었다.

두 지역의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국계중국인 밀집지역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를 묻자 타인의 권유와 입소문에 의해,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응답이 공통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자양4동 응답자들은 16%가 해당 지역이 미디어에 자주 노출된 것을 관심계기라고 응답한데 비해 대림2동 응답자들은 경험을 중시하는 소비성향이나 기타 다양한 이유로 관심계기를 꼽았다.



<그림 35> 대림2동 방문자의 관심 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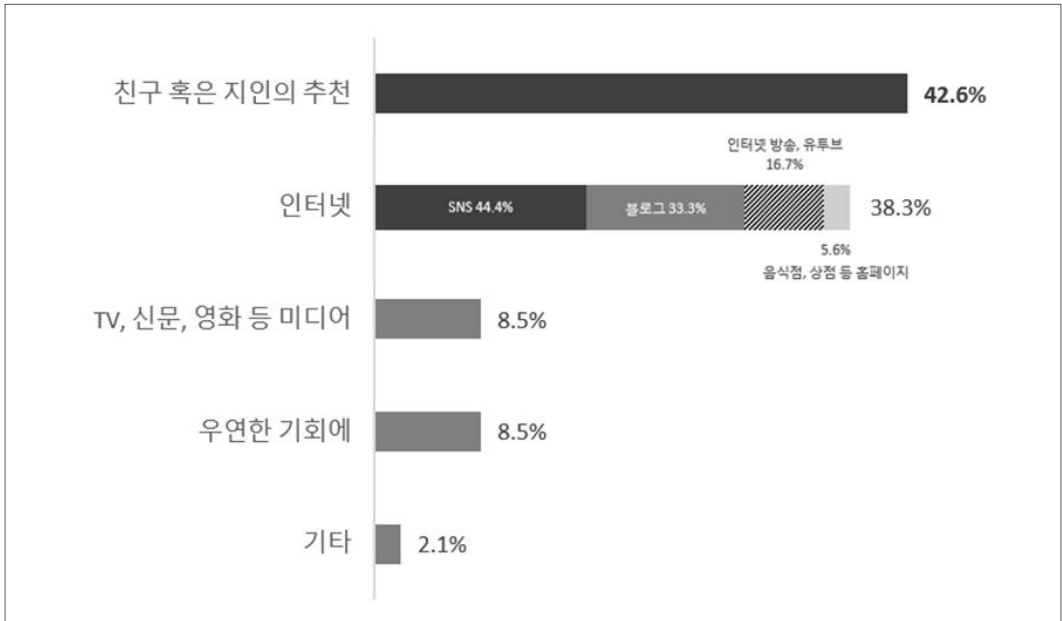


<그림 36> 자양4동 방문자의 관심 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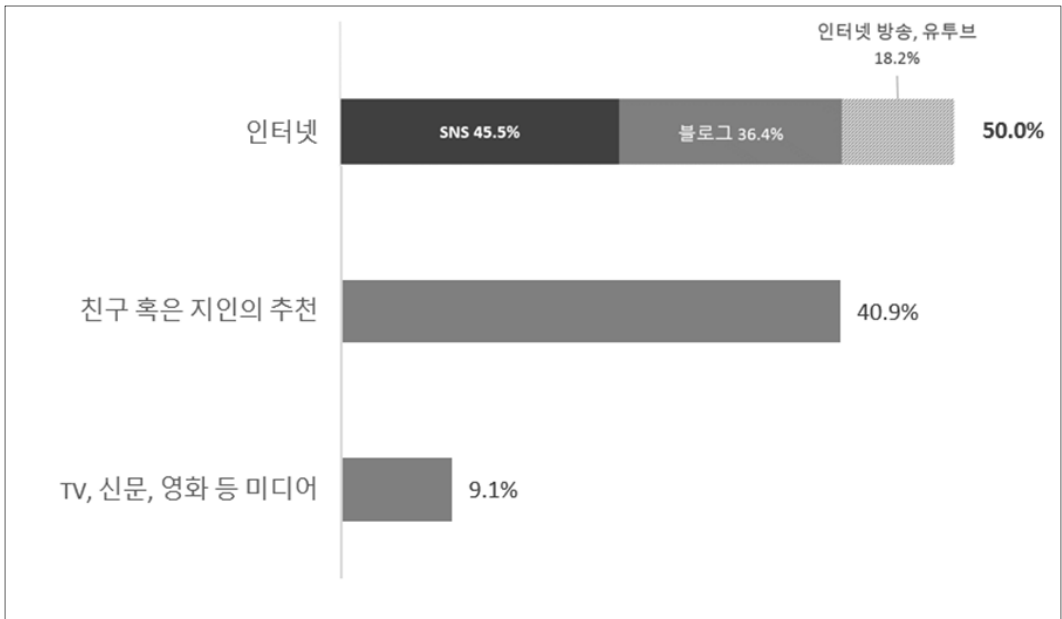
대림2동에 방문한 응답자 중 42.6%는 이곳에 방문하기 위해 지인으로부터 정보를 얻었으며, 38.3%는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얻었다고 응답했다. TV나 신문, 영화 등 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수집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8.5%였으며, 우연한 기회에 방문했다는 응답도 같은 비중을 차지했다.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수집한 구체적인 경로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웨이보 등 SNS가 44.4%, 블로그를 통한 정보수집이 33.3%, 인터넷 방송이나 유튜브를 통한 정보수집이 16.7%, 음식점이나 상점의 홈페이지 방문을 통한 정보수집이 5.6%를 구성하고 있었다.

자양4동의 응답자들은 절반이 인터넷을 통해 방문지역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고 응답했다. 40.9%는 친구, 지인의 추천을 통해 정보를 얻었으며, 9.1%의 응답자가 TV, 신문, 영화 등의 미디어에서 정보를 수집했다고 응답했다. 인터넷 정보수집의 구체적인 채널은 대림2동과 마찬가지로 SNS, 블로그, 인터넷 방송이나 유튜브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각각 인터넷 정보수집의 45.5%, 36.4%, 18.2%를 구성하고 있다.

두 지역의 방문자들은 대부분 지인의 추천이나 인터넷을 통해 한국계중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정보를 습득한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대림2동 방문자가 자양4동 방문자에 비해 지인의 추천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습득한 경우, 일부는 음식점 및 상점의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습득한 경우도 있었으나 대부분의 채널은 SNS, 블로그, 인터넷 방송이라는 특징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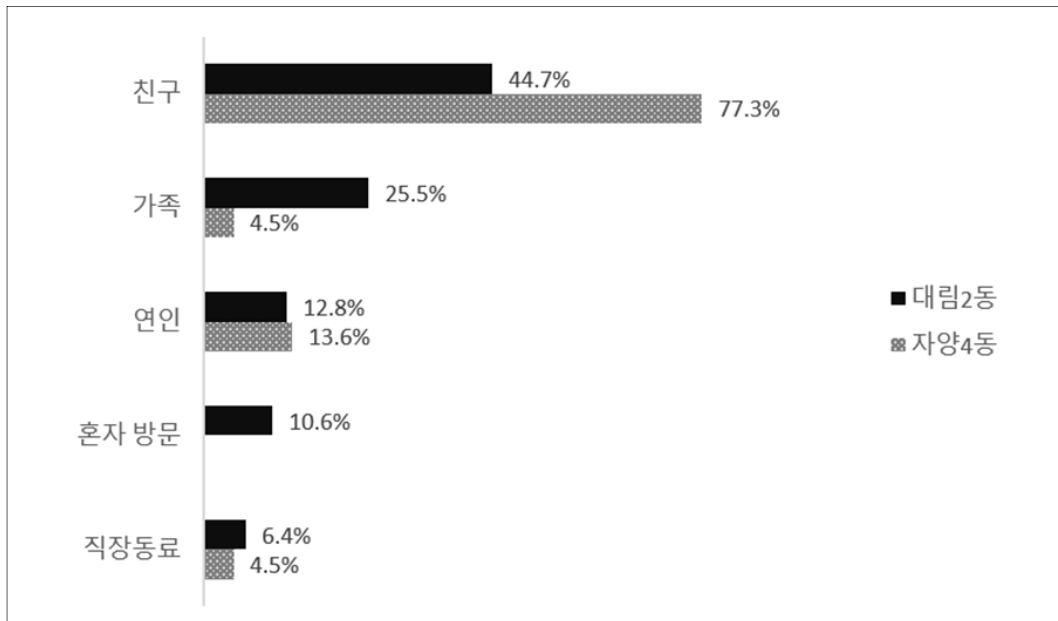


<그림 37> 대림2동 방문자 인터뷰를 통한 정보수집 채널



<그림 38> 자양4동 방문자 인터뷰를 통한 정보수집 채널

방문할 때 누구와 함께 방문했느냐는 질문에 대림2동은 친구와 함께 방문했다는 응답자가 44.7%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25.5%가 가족과 함께, 12.8%가 연인과 함께, 10.6%가 혼자방문 했으며, 6.4%가 직장동료와 함께 방문했다고 응답했다. 자양4동 방문자는 77.3%가 친구와 함께 방문했고, 13.6%가 연인과 함께 방문했으며 가족과 직장동료와 방문했다는 응답이 각각 4.5%를 차지했다.



<그림 39> 한국계중국인 밀집지역 방문 시 동행자

2) 소비공간 만족도

한국계중국인 밀집지역을 방문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방문지역에 대한 몇 가지 항목에 대하여 만족도를 조사했다. 만족한 정도는 매우 만족(5점), 만족(4점), 보통(3점), 불만족(2점), 매우 불만족(1점)으로 평가했으며, 관광 및 문화체험의 공간, 치안, 교통, 음식, 쇼핑, 관광안내서비스, 매력도, 언어소통, 물가, 전반적인 소비의 공간으로서 만족도에 대해 조사했다. 대림2동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결과 교통이 편리하다는 응답과 음식문화가 만족스럽다는 응답이 평균 4.0점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문화적 언어적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문객들이 언어소통 부분에서 응답한 만족도는 평균 3.7점으로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보였다. 반면, 쇼핑과 관광안내서비스 측면에서는 각각 만족도 평균 3.0점, 2.8점으로 만족도를 보통 이하라고 평가했다. 지속적인 방문의지를 묻는 대답에 대림2동 방문자 74%가 재방문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지인에게 대림2동을 소비 공간으로 추천할 의사가 있냐는 질문에는 57%가 긍정적이라고 응답했다.

자양4동 방문객은 해당 지역의 음식에 만족도를 평균 4.2점으로 평가했다. 언어소통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3.7점, 물가, 교통의 편리함, 소비 공간 만족도를 각각 3.5점으로 평가했다. 지역의 매력도는 평균 3.4점, 문화 및 체험의 공간으로는 평균 만족도 3.3점, 쇼핑만족도는 평균 3.0점으로 평가했다. 반면 방문자가 느끼는 치안과 관광안내서비스는 각각 평균 만족도 2.8점, 2.6점으로 보통 이하의 만족도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만큼 응답자의 72%가 재방문 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지인에게 추천할 의사가 있냐는 질문에도 응답자의 72%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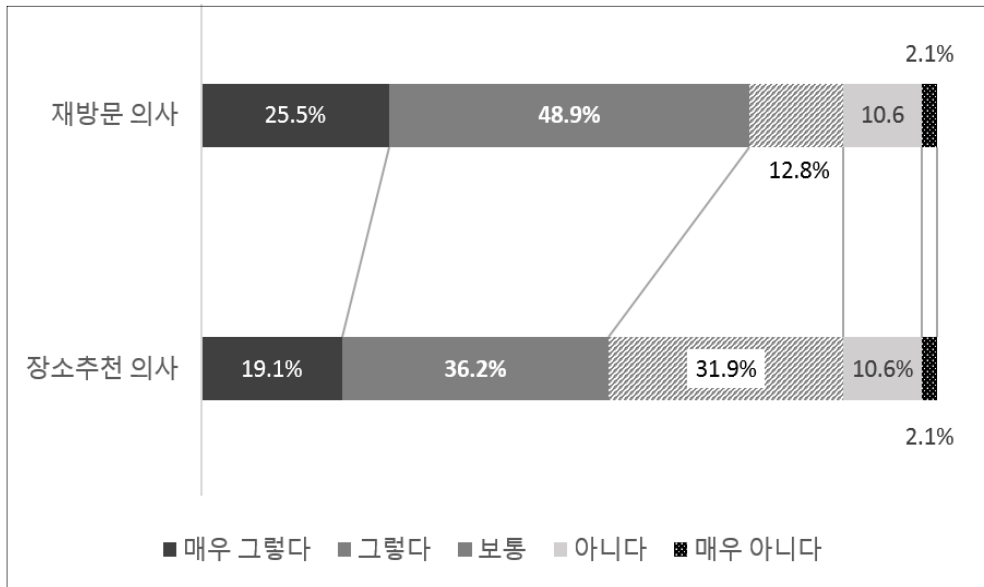
대림2동, 자양4동 방문요인 및 만족도 조사를 종합해 보면 방문자들은 공

통적으로 지인의 추천이나 입소문에 의해 한국계중국인 밀집지역의 상권에 관심을 갖게 되며, 인적자원 혹은 인터넷을 통해 해당 지역에 대한 정보를 습득한다. 방문자들은 대체로 음식 및 미식탐방을 위해 한국계중국인 밀집지역에 친구와 함께 방문하며, 이국적인 음식문화를 소비한 후 전반적으로 음식소비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는 한국계중국인 밀집지역에 형성된 상권의 관광, 쇼핑, 치안에 불만족하지만 방문목적인 미식에 만족하고 교통이 편리하다는 점에서 재방문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지인 및 친구에게도 추천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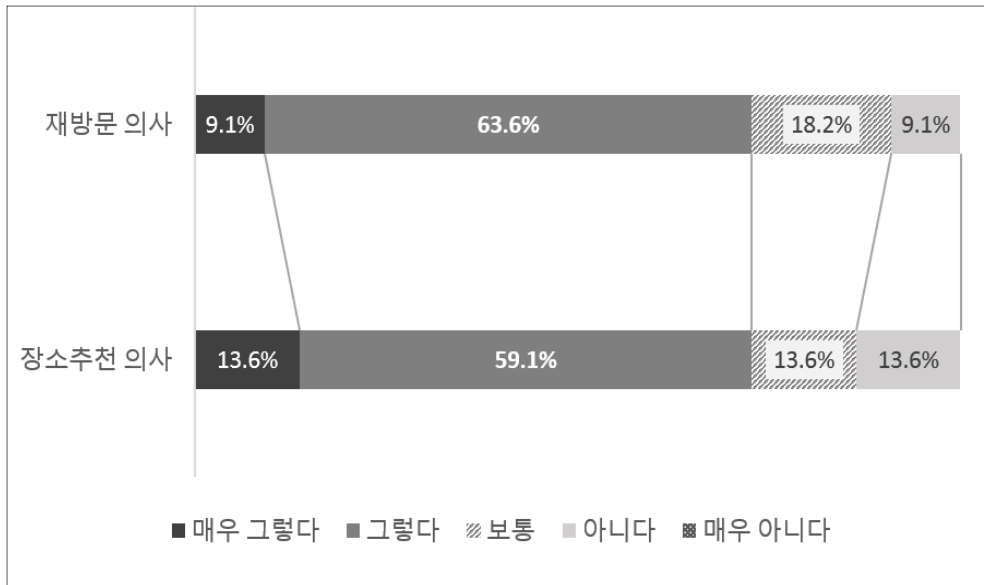
이 장은 소비자가 소비행동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만족을 느끼며 정체성을 구축하므로 소비자와 생산자가 상호 유기적이기 때문에 사회적·경제적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문화주의적 소비자관점에 근거하여 분석되었다. 문화주의적소비자 관점은 공간이 소비를 유도하도록 설계될 수 있음을 강조하는데, 인터뷰 및 설문 결과 한국계중국인 밀집지역이 갖는 독특한 문화경관, 특히 음식을 중심으로 하는 상권이 소비를 유도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40> 방문자 인터뷰를 통한 상권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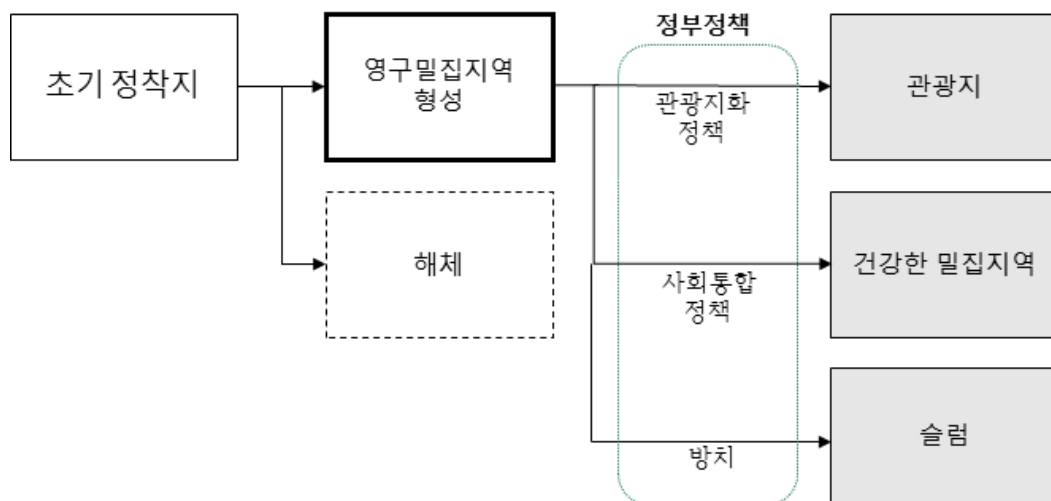
<그림 41> 대림2동 재방문 및 장소추천 의사



<그림 42> 자양4동 재방문 및 장소추천 의사

3. 한국계중국인 밀집지역의 소비공간화 전망

외국인 밀집지역이 안정적으로 형성될 경우 지역은 다양하게 진화한다. 이 단계에서는 정부정책이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첫 번째로 외국인 밀집지역이 관광지화 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해당 밀집지역이 이색적인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하는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을 경우 지방정부의 정책에 힘입어 관광지로 진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외국인 밀집지역이 한국의 도시 공간 속에 평범하지만 건강한 지역 사회를 형성하는 경우이다. 외국인이 밀집되어 있지만 주변화되거나 소외되지 않고, 사회적 낙인이나 공간적인 고립없이 지역사회와 조화를 이루는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밀집지역이 빈곤, 실업 등 사회문제가 심화되고 사회적·공간적으로 고립되면 슬럼화 될 우려가 있다(그림 43).



<그림 43> 이주민 밀집지역의 진화 시나리오

자료: 박세훈 외(2009) 재구성

이러한 시나리오를 본 연구에 적용해 보면, 자양4동은 지자체의 관여로 양

꼬치 거리라는 관광지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림2동은 대표적인 한국계중국인 상권지역이지만 자양4동 만큼 외부 소비자를 끌어들이지는 못하며 이민자와 주류사회의 문화적 차이가 극복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건강한 밀집지역이라고 할 수도 없다.

“여기 공원에 와서 앉아있는 것도 주민센터에 자꾸 신고가 들어온대. 우리 조선족 노인들이 공원에서 바둑도 못 두고, 오락도 못하고. 우리는 여기 와서 아주 업신당하는 것 같고 자존심이 상해요. 우리도 한국 분들이랑 문화가 다른 거 다 알아. 당연히 서로 맞지 않는 게 있겠지 만은 우리가 중국에서 살고 싶어서 산 것도 아니고 같은 조상인데, 한국에 올 때 자부심 가지고 왔는데 무시당하니까 분하고 그래.”

- 대림2동 한국계중국인 거주자 (한국 거주 25년 이상)

세계화와 국제이주로 도시는 점점 다문화사회를 경험하게 된다. 도시가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는 단계에서는 개인 단위의 형태로 이주가 발생하고 이주민은 사회에서 소외되거나 주변화 될 가능성이 높다. 본론에서 서울시 상이 지수를 확인한 결과, 가리봉동 소재지인 구로구에서 한국계중국인의 분리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한국계중국인은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값싼 주거지에서 거주를 하게 되며 가리봉동은 한국계중국인의 대표적인 초기 진입지라고 할 수 있다. 한국계중국인들은 초기정착지인 가리봉동에서 재개발 계획에 의해 대림동으로 이동했다. 그러나 가리봉동은 재개발 계획의 방치로 인해 지역의 침체와 슬럼화가 우려되는 실정이므로 정부 혹은 공공차원의 지역슬럼화 방지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다문화사회가 성숙하게 되면 도시에 영주권을 가진 이주민의 수가 증가하고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갈등, 소외가 심화된다. 이때 이주민은 가

족 및 친족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밀집지역을 형성하고,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경제 인프라를 형성한다. 이는 곧 주변 지역사회와의 갈등을 유발하는데, 대림2동과 자양4동은 비교적 한국사회에 적용한 한국계중국인들이 가족단위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주민을 위한 상업시설을 운영하며 생활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국적인 경관을 형성하게 되고, 문화적 차이로 주류사회와 갈등을 겪기도 한다. 다문화사회가 성숙을 넘어 심화된 단계에서는 다양성이 지역의 핵심 테마로 작용한다. 자양4동은 양꼬치 거리, 중국 음식문화거리라는 장소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는 광진구 차원에서 자양4동을 주변 상권과 함께 관광지화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한 경관이라는 특징이 있다. 자양4동은 관광지화 정책에 의해 ‘건대 양꼬치 거리’라는 이름이 붙여지고 유명해져 중국음식을 맛볼 수 있는 대표적인 상권이 되었다. 소비자는 중국풍 음식문화를 즐기기 위해 해당 지역을 방문하고 스스로 지역에 대한 정보를 찾는다. 그러나 여전히 치안의 문제, 문화차이에 의한 갈등 등 내국인과의 사회통합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역사적으로 같은 민족이라는 공동체의식을 상기시키며 문화차이 극복을 위한 행사나 주민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사회통합정책이 수반되어야 건강한 밀집지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대림2동은 한국계중국인들이 밀집하여 거주하면서 그들을 위한 생활 서비스 및 음식점 등을 중심으로 성장했다. 그들이 형성한 중국문화거리가 핵심적인 지역의 테마로 작용하고 있으며, 불법경제활동을 하는 이주민을 고용하는 등 도시에서 자신들의 하위계층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여전히 문화차이가 극복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주민협회, 동포연합회 등 단체를 만들어 자신들의 정치적·사회적 권리를 요구하기도 한다. 또한, 대림2동은 한국계중국인들의 2세대, 3세대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대림2동은 한국계중국인 집단이 지역사회에서 끼치는 영향력이 크고 정책적으로 권리를 요구하면서 건강한 밀집지역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인근지역인 가리봉동의 숙박 및 음식점업은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 대림동은 사업체수와 종사자수가 모두 증가하고 있으며, 증가하는 임대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대림2동에 한·국제중국인뿐만 아니라 한·족 중국인들과 한국인들까지 소비자로 등장하면서 치안이나 관광안내서비스 등 제도적 개선이 수행될 때 지역이 도시의 다양성에 기여하고 시민을 위한 문화소비공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V. 요약 및 결론

에스닉 엔클레이브는 소수인종집단이 주류사회 속에서 독자적인 생활공간에 집적하고 영세하게 자영업을 하며 형성한 사회적·경제적 공동체를 의미한다. 에스닉 엔클레이브는 주류사회와 다른 이질적인 문화를 생산해내고 공간을 변화시킨다는 특징을 가지며, 이를 통해 도시에 다양성을 제공하고 새로운 문화경관을 보여줄 수 있다. 이는 소비를 중시하는 현대사회에서 소비자의 호기심을 충족시켜주고, 체험형 소비가 가능한 공간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지역의 경제 및 문화 활성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본 연구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한국계중국인 밀집지역을 엔클레이브 발전단계에 적용시켜보고 공간적으로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 분석하는 한편, 한국계중국인 밀집지역의 소비공간화를 사업자 입지요인과 소비자 방문요인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본 논문의 내용요약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계중국인들은 1990년대 국내에 이주하기 시작했으며 가리봉동, 대림2동, 자양4동은 서울의 대표적인 한국계중국인 밀집지역으로 꼽힌다. 서울시 내에서 상대적·절대적 인구분포를 살펴본 결과 한국계중국인들은 가리봉동 소재지인 구로구, 대림2동 소재지인 영등포구를 비롯한 서울 서남부지역에 밀집하여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계중국인의 고립도를 파악하기 위해 상이지수를 분석한 결과 또한 이와 일치했다. 가리봉동은 한국계중국인이 경제활동을 위해 임시로 정착한 곳이며, 가족 및 친족과 공동체를 형성하지 않은 채 개인단위로 이주하여 쪽방에 거주하는 형태를 보인다. 대림2동은 한국계중국인들이 친인척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국인들의 전통시장에 침입하여 한국인 상인들과 상업공간에 공존하며 경제 인프라를 구성하고 있다. 자양4동은 한국사회에 적응하고 경제적 여유를 가진 동포들이 서울에 진입한 공간이다. 그들은 주거, 상업, 문화 등의 부문에서 한국인과 한

국 문화에 비교적 쉽게 노출되어있다. 특히 광진구차원에서 지정한 ‘양꼬치 거리’의 조성은 한국계중국인이 자생적으로 만든 상권이 아니라는 점이 특징적이다.

둘째, 대림2동, 자양4동 사업자를 인터뷰 한 결과 대림2동은 지인의 추천 등 인적 네트워크가 입지 결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대림2동은 한국계중국인들이 거주하기 시작하면서 상권을 만들어간 반면, 자양4동은 한국계중국인들이 만든 소규모 상권이 광진구 차원에서 정책적인 지원을 받아 활성화되었다. 따라서 자양4동은 인적네트워크보다 유동인구가 많고 상권이 활발한 것이 상업시설의 주요 입지요인으로 나타났다. 두 지역의 사업자들은 공통적으로 각 지역 교통이 편리하고 언어소통에 어려움이 없으며, 앞으로도 해당 지역에서 사업을 지속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는데, 대림2동은 유동인구가 증가하고 상권이 활성화됨에 따라 임대료 상승을 경험하면서 사업자 만족도가 비교적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림2동, 자양4동 방문자 설문 결과 두 지역의 방문자들은 공통적으로 “여가, 위락, 휴식”을 위해 해당 지역에 방문하는 경향이 있으며, 음식, 미식탐방이 방문자를 끌어들이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 밀집지역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도 지인의 권유나 입소문,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 경험을 중시하는 소비 성향, 미디어에 노출된 것 때문이라는 공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대림2동 방문자들은 주로 지인의 추천이나 입소문을 통해 방문지역의 정보를 얻는다고 응답했으나, 자양4동 방문자들은 인터넷, 특히 SNS와 블로그에서 정보를 얻는다고 응답했다. 두 지역 방문자들은 대부분 친구와 함께 연구지역을 방문했다고 응답했는데, 대림2동은 가족과 방문하고 혼자 방문하기도 하는 반면, 자양4동은 가족보다 연인과 방문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도에 대한 설문결과 두 지역 방문자들은 공통적으로 음식, 교통, 언어소통 부분에서 만족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반면, 치안 및 관광서비스는 방문자 만족도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지역을 방문자는 각각 70%이상 해당 지역 재방문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타인에게 추천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넷째, 가리봉동은 노동자들이 경기불황에 타격을 입고 재개발계획이 방치되면서 빈곤, 실업 등 사회문제가 심화되고 사회적, 공간적으로 고립되어 슬럼화 될 우려가 있다. 반면, 자양4동은 한국계중국인 밀집지역으로 이색적인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하는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방정부의 정책에 힘입어 관광지로 진화했다. 대림2동은 서울의 대표적인 한국계중국인 상업공간이지만 관광지화될 수 있는 정책적지원이 부족하다. 대림2동, 자양4동 방문자 설문조사 결과 공통적으로 치안에 대한 만족도가 부족하고, 기존 한국인 거주자와 문화차이를 완벽하게 극복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건강한 한국계중국인 밀집지역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 내 유형 및 무형자산을 활용해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간적으로 환경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한중문화이해를 위한 자치 프로그램운영, 외부 관광객을 위한 방문자 서비스, 우범지역이라는 사회적 편견 개선 등 질적·정서적 변화가 기반이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기존 연구는 한국계중국인 밀집지역을 주류 사회와의 갈등 혹은 분리의 공간, 한족 밀집지와 차이점 등 사회적 통합에 중점을 두고 연구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한국계중국인 밀집지역을 소비자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소비공간으로 바라보았으며 경제지리학의 문화주의적 소비자 관점으로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다. 문화주의적 소비자 관점은 소비자가 소비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구축하고 소비자와 생산자는 상호 유기적이며, 이를 통해 사회에 더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이때 정체성을 구축하는 과정은 장소 특징적이므로 공간이 소비

를 유도하도록 설계될 수 있으며 본 연구는 한국계중국인 밀집지역이 갖는 독특한 문화경관, 특히 음식을 중심으로 하는 상권이 소비를 유도했음을 확인했다. 또한, 2016년 1/4분기 이후 개인정보의 보호차원에서 기관이 동별 등록외국인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최신 자료분석이 어려워졌으나, 본 연구는 국내 인구주택총조사 전수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계중국인 거주지 분포에 대한 최신 공간분포패턴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연구과제로는 한국계중국인 밀집지역이 갖는 경제적 효과와 한족 중국인의 상권 침입 등을 제시해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계 중국인밀집지역 사업자의 입지요인과 소비자의 방문 이유, 만족도 등을 직접 인터뷰를 통해 조사했다. 그러나 인터뷰를 위한 시간과 자원, 언어적 한계로 충분한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한 한계를 갖는다.

참고문헌

1. 연구보고서 · 학술지

- 김상일 · 허자연, 2016, 서울시 상업 젠트리피케이션 실태와 정책적 쟁점, 서울연구원 정책과제 연구보고서
- 김희순, 정희선, 2011, 커뮤니티 아트를 통한 다문화주의의 실천: 안산시 원곡동 ‘리트머스’의 사례, 국토지리학회지, 45(4), pp.93-106.
- 류정아, 2015, 문화다양성 개념과 도시정책적 함의, 서울정책아카이브 세계와 도시, 11. pp.6-11.
- 박세훈 · 이영아 · 김은란 · 정소양, 2009, 다문화사회에 대응하는 도시정책연구(I): 외국인 밀집지역의 현황과 정책과제. 국토연구원
- 박우, 2017, 서울 남서부 지역 조선족 집거지에 대한 연구, 아태연구, 24(2), pp.69-99.
- 방성훈 · 김수현, 2012, 한국계 중국인 밀집주거지의 분화에 관한 연구, 19(2), 한국사회정책, pp.39-68.
- 신지연 · 이영민, 2014, 글로벌 이주 시대의 재외 한인타운의 재구성과 민족간 관계 연구, 문화역사지리 26(1), pp.50-66.
- 심창섭 · 강형철, 2017, 관광자원으로서 에스닉타운에 관한 개념적 고찰, 관광연구논총, 29(1), pp.3-19.
- 이석준, 2014, 조선족 밀집지의 형성과 성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99-107.
- 이영민 · 이용균 · 이현욱, 2012, 중국 조선족의 트랜스이주와 로컬리티의 변화 연구,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5(2), pp.103-116.
- 이영민 · 이은하 · 이화용, 2014, 서울시 중국인 이주자 집단의 거주지 특성과

- 장소화 연구,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7(2), pp.15-37.
- 이용균, 2013, 이주자의 장소 점유와 주변화 담론 연구,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6(2), pp.218-232.
- 이자원, 김혜진, 2017, 수도권 외국인 출신국적에 따른 거주지의 공간적 분포, 국토지리학회지, 51(2), pp.123-133.
- 이종구 · 임선일, 2010, 재한 중국동포의 에스니시티(ethnicity) 변용에 관한 연구, 산업노동연구, 16(1), pp.343-375.
- 이화용, 2015, 중국국적 이주자 밀집지역의 엔클레이브화와 게토화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117-120.
- 최병두, 2012. 초국적 이주와 한국의 사회공간적 변화, 대한지리학회지, 47(1), pp.13-36.
- 최우길, 2019, 조선족 연구 30년: 회고, 과제 그리고 전망, 재외한인연구, 47, pp.29-54.
- 황준기 · 오동훈, 2015, 문화주도적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의한 장소성 변화 연구, 한국도시행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pp.197-213.

2. 단행본

- 이정화, 2015, 문화소비, 커뮤니케이션북스, p.6.
- 한지은, 2014, 도시와 장소기억,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pp.11-22.
- David H. Kaplan, Steven R. Holloway, James O. Wheeler, Urban Geography; 김학훈, 이상울, 김감영, 정희선, 시그마프레스, 2016, p.157.
- Neil M. Coe, Philip F. Kelly, Henry W.C. Yeung, Economic geography; 안영진, 이종호, 이원호, 남기범, 푸른길, 2016, p.331.
- P Kivell, Land and the city: patterns and processes of urban change,

Routledge, 1993

Richard Florida, 도시는 왜 불평등한가, 매일경제신문사; 안종희, 2018

Yuko Aoyama, James Murphy, Susan Hanson, Key Concepts in
Economic Geograghy; 이철우, 이원호, 이종호, 서민철, 푸른길, 2018

ABSTRACT

A Study on the Consumption-Spatialization of Korean-Chinese Enclaves in Seoul

- Comparative Study of Daelim 2-dong and Jayang 4-dong -

Park Mirae

Department of Geography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In the modern society, both cross-nationality and cross-border migration is gradually increasing due to globalization. South Korea is also experiencing a rapid transition to a multi-cultural society as the influx of migrant workers, students and immigrants accelerates. The occupied space of Korean-Chinese in Seoul is the representative enclave that has formed a unique cultural landscape. Korean-Chinese people have an advantage of migrating in because they are not verbally uncomfortable to live in Korea and have low cultural barriers in various fields, including eating habits. The Korean-Chinese started moving in the 1980s and settled in Guro-gu and Yeongdeungpo-gu in Seoul, where housing costs were low. The area has recently come under the spotlight as a consumption space featuring Chinese-style food culture since it has recently been exposed to media

such as movies, SNS and internet broadcasting.

Since cities provide consumption space through ethnic enclave's cultural landscape and further gain economic vitality, research on the two phenomena needs to be conducted systematically.

Daelim 2-dong was forming an economic infrastructure in which the Korean-Chinese broke into traditional markets of Koreans based on a network of relatives and coexisted with Korean merchants in commercial spaces. The Korean-Chinese are visiting for the consumption of the authentic Chinese culture in Daelim 2-dong, while Koreans are curious about something new and have a Chinese culture experience, as the survey shows. In the residential, commercial and cultural sectors, Jayang 4-dong is a relatively easy-approaching area for Koreans and Korean culture. In particular, it was designated as 'Lamb Skewer Street' by Gwangjin-gu and then it is building its fame of the representative dining district for lamb skewers.

The study calculated the LQ and dissimilarity index of the dense Korean-Chinese areas. Guro-gu, Yeongdeungpo-gu and Gwangjin-gu are highly isolated in terms of Korean-Chinese distribution in Seoul, as shown in the report.

According to interviews with merchants, the human network including friends' recommendation wa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selecting locations for businesses in Daelim 2-dong. On the other hand, large floating population and the well-established commercial district are the main location of the commercial facilities in Jayang 4-dong. Surveys for visitors, in the meantime, show that visitors for both regions had a

common goal of visiting for gourmet exploration and becoming interested in the area by the recommendation of acquaintances. People visits Daelim 2-dong with their families and collect information through their friends. On the other hand, people visit Jayang 4-dong with their lovers and collect information through internet searches such as SNS. While Jayang 4-dong has become a famous tourist destination for Chinese food specialties under the Gwangjin-gu policy, Daelim 2-dong lacks policy support. For Daelin 2-dong, therefore, physical and emotional policy support is needed in order to form a healthy and safe commercial space and to be reborn as an attractive tourist destination.

Unlike previous research on alienation, isolation and ghettoization of Korean-Chinese enclaves, this study aims to see the ethnic enclave as a consumption space for urban development. In the era of deindustrialization, the concept and behavior of consumption have changed, and the role of the ethnic enclave as a new consumption space in cities should be studied, which was the purpose of this study. In addiotn this study analyzed the latest data, the 2018 transfer data using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s micro-data service. The study has direct interviews with operators and visitors in the target area for the study, but there is also a problem of representation since the study does not have sufficient data due to time, resources and language limitations for the study.

부록

1. 설문지

‘한국계 중국인 밀집지역과 소비공간화’에 대한 연구 설문조사

(한국계 중국인 사업자 설문지)

성별	①남 ②여	현재 거주지역	①가리봉동 ②대림동 ③자양동 ④기타(_____)
국적(민족)	①한국인 ②한국계중국인(조선족) ③한족 ④기타(_____)		
연령	①만19세 이하 ②만20~29세 ③만30~39세 ④만40~49세 ⑤만50~59세 ⑥만60~69세 ⑦만70세 이상		
업종	①음식 ②생활서비스(세탁/미용/수리/용역알선/법무 등) ③소매 ④관광/여가/오락 ⑤스포츠 ⑥교육 ⑦숙박 ⑧부동산 ⑨기타(_____)		
한국 거주기간 (한국인제 외)	①1년 미만 ②1년 이상~5년 미만 ③5년 이상~10년 미만 ④10년 이상~15년 미만 ⑤15년 이상~20년 미만 ⑥20년 이상~25년 미만 ⑦25년 이상		
월 소득	①100만원 미만 ②101~200만원 ③201~300만원 ④301~400만원 ⑤400만원 이상 ⑥무응답		

1. 본인의 출신지는 어디입니까?

: _____ (예: 중국 길림성 훈춘시 또는 중국 베이징시)

1-1.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거주한 곳은 어디입니까?

①서울특별시 ②인천광역시 ③경기도 ④기타(_____)

1-1-1. 「①서울특별시」를 선택하신 경우, 구체적인 동명을 선택해주시오.

①가리봉동 ②대림동 ③자양동 ④기타(_____)

1-2. 한국에서 거주지를 옮긴 적이 있다면 순서대로 적어주시오.

_____ → _____ → _____ → _____

(예: 서울시 구로구 가리봉동 → 영등포구 대림동 → 동대문구 회기동)

2. 사업장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4. 이곳에서 사업을 할 때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5. 이곳에서 사업을 할 때의 단점은 무엇입니까?

6. 다음 질문의 응답에 V표 해 주십시오.

	항목	매우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앞으로도 이 지역에서 계속 사업을 할 의사가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2	사업지로서 이 지역을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시겠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6-1. 앞으로 이 지역에서 사업을 할 계획이 아니라면, 어떤 지역으로 이동할 계획이
십니까?

_____ (예: 동대문구 회기동, 영국 런던, 중국 베이징 등)

(기타)

조선족 창업자의 경우 관공서의 행정적 지원이나 혜택이 있는지?

한국인 창업자의 경우 다국적 상업공간 속에서 어떤 행정적 도움이 필요한지?

‘한국계 중국인 밀집지역과 소비공간화’에 대한 연구 설문조사

(방문자 설문지)

성별	①남 ②여	거주지 역	(예: 서울시 성북구 돈암동)
방문지역	①가리봉동 ②대림동 ③자양동 ④기타(_____)		
국적(민족)	①한국인 ②한국계중국인(조선족) ③한족 ④기타(_____)		
연령	①만19세 이하 ②만20~29세 ③만30~39세 ④만40~49세 ⑤만50~59세 ⑥만60~69세 ⑦만70세 이상		
직업	①학생(대학 및 대학원) ②회사원(사무직) ③자영업 ④판매서비스직 ⑤생산기술직(공장 및 건설현장 종사자) ⑥무직 ⑦전문직 ⑧기타		
한국 거주기간 (한국인제외)	①1년 미만 ②1년 이상~5년 미만 ③5년 이상~10년 미만 ④10년 이상~15년 미만 ⑤15년 이상~20년 미만 ⑥20년 이상~25년 미만 ⑦25년 이상		
월 소득	①100만원 미만 ②101~200만원 ③201~300만원 ④301~400만원 ⑤400만원 이상 ⑥무응답		
아래 항목은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응답자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p>1. 본인의 출신지는 어디입니까?</p> <p>: _____ (예: 중국 길림성 훈춘시 또는 중국 베이징시)</p> <p>1-1.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거주한 곳은 어디입니까?</p> <p>①서울특별시 ②인천광역시 ③경기도 ④기타(_____)</p> <p>1-1-1. 「①서울특별시」를 선택하신 경우, 구체적인 동명을 선택해주십시오.</p> <p>①가리봉동 ②대림동 ③자양동 ④기타(_____)</p> <p>1-2. 한국에서 거주지를 옮긴 적이 있다면 순서대로 적어주십시오.</p> <p style="text-align: center;">_____ → _____ → _____</p> <p style="text-align: center;">(예: 서울시 구로구 가리봉동 → 영등포구 대림동 → 동대문구 회기동)</p> <p>2. 거주지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p> <p>①친척, 지인이 이미 거주함 혹은 추천 ②자녀교육 및 다문화가족을 위한 공공혜택</p>			

- ③저렴한 주거비 ④문화 및 언어의 적응이 용이
- ⑤교통이 좋음 ⑥일자리를 얻기 쉬움 ⑦일자리와 가까움
- ⑧문화적 차별이 적음 ⑨상권이 좋음
- ⑩기타(_____)

1. 해당 지역을 방문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 ①여가, 위락, 휴식 ②사업 또는 일 ③교육(어학 및 연수 등)
- ④쇼핑 및 물건 구매 ⑤기타(_____)

1-1. 「①여가, 위락, 휴식」을 선택했을 경우 구체적인 요인을 선택해주시오.

「1순위:_____ 2순위:_____ 3순위:_____」

- ①음식/미식 탐방 ②쇼핑 ③친구, 친지 방문
- ④문화/역사 탐방 ⑤숙박/교통의 편리성 ⑥유흥/놀이 시설
- ⑦이국적인 분위기 체험 ⑧영화/TV프로그램의 촬영지 방문 ⑨여행
- ⑩기타(_____)

2. 응답자께서는 이 지역을 얼마나 자주 방문하십니까?

- ①일주일에 1-2회 ②한 달에1-2회 ③1년에 1-2회 ④기타(_____)

5. 방문지역에 대한 항목별 만족정도에 V표 해 주십시오.

	항목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	관광 및 문화체험의 공간	①	②	③	④	⑤
2	치안	①	②	③	④	⑤
3	교통의 편리함	①	②	③	④	⑤
4	음식	①	②	③	④	⑤
5	쇼핑	①	②	③	④	⑤
6	관광안내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7	지역의 매력도	①	②	③	④	⑤
8	언어소통	①	②	③	④	⑤
9	물가	①	②	③	④	⑤
10	전반적인 소비공간으로서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6. 다음 질문의 응답에 V표 해 주십시오.

	항목	매우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앞으로도 이 지역에 방문할 의사가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2	소비공간으로서 이 지역을 다른사람에게 추천하시겠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7. 방문 지역이 서울시 다른 상업공간과 다르게 느껴졌다면 어떤 점이 다르게 느껴지는지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응답자께서 생각하는 이 지역의 강점, 장단점, 특징, 차별성 등도 좋습니다.)

2 설문응답자 요약

대림2동						
	번호	성별	거주지역	연령	직업/업종	월 소득
방문자	1	여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	만20-29세	학생	무응답
	2	여	무응답	만20-29세	학생	무응답
	3	여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만30-39세	회사원	400만원 이상
	4	남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	만40-49세	생산기술직	301-400만원
	5	여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	만30-39세	무직	301-400만원
	6	여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만20-29세	회사원	201-300만원
	7	여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만40-49세	회사원	301-400만원
	8	여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	만40-49세	기타	101-200만원
	9	남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만40-49세	회사원	301-400만원
	10	남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만30-39세	회사원	201-300만원
	11	여	서울시 동작구	만20-29세	무직	무응답
	12	여	서울시 노원구	만20-29세	무직	무응답
	13	남	부산시	만20-29세	한국인	무응답
	14	여	충북 충주시	만20-29세	한국인	무응답
	15	여	중국	만20-29세	회사원	무응답
	16	여	서울시 금천구	만30-39세	무직	무응답
	17	여	경기도 포천시	만50-59세	회사원	무응답
	18	여	경기도 포천시	만50-59세	무직	무응답
	19	여	경기도 포천시	만50-59세	기타	무응답
	20	남	경기도 안산시	만20-29세	학생	무응답
	21	여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	만30-39세	판매서비스직	201-300만원
	22	여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	만60-69세	무직	무응답
	23	남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	만40-49세	기타	201-300만원
	24	남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만60-69세	생산기술직	무응답
	25	남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	만60-69세	생산기술직	400만원 이상
	26	여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	만30-39세	자영업	101-200만원
	27	여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만30-39세	회사원	301-400만원
	28	남	무응답	만40-49세	회사원	400만원 이상
	29	남	경기도 과천	만20-29세	학생	100만원 미만
	30	여	서울시 성북구 동선동	만20-29세	회사원	101-200만원

	31	여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만20-29세	학생	무응답
	32	남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	만50-59세	생산기술직	301-400만원
	33	여	서울시 서대문구 연남동	만20-29세	학생	100만원 미만
	34	여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만20-29세	회사원	201-300만원
	35	여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만20-29세	회사원	201-300만원
	36	여	인천광역시	만20-29세	회사원	201-300만원
	37	남	경기도 안양시	만20-29세	기타	101-200만원
	38	남	인천광역시	만20-29세	회사원	101-200만원
	39	여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만20-29세	회사원	201-300만원
	40	남	서울시 동대문구	만20-29세	학생	무응답
	41	여	고양시 주교동	만20-29세	기타	무응답
	42	남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	만40-49세	생산기술직	301-400만원
	43	여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	만30-39세	무직	301-400만원
	44	여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	만40-49세	기타	101-200만원
	45	남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	만40-49세	기타	201-300만원
	46	남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	만60-69세	생산기술직	400만원 이상
	47	남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	만40-49세	생산기술직	301-400만원
사업자	48	여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	만70세 이상	음식업	101-200만원
	49	여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	만50-59세	소매업	400만원 이상
	50	여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	만50-59세	음식업	무응답
	51	남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	만60-69세	부동산	무응답
	52	남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	만60-69세	음식업	301-400만원
	53	남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	만60-69세	생활서비스	301-400만원
	54	남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	만60-69세	생활서비스	301-400만원
	55	여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만30-39세	음식업	무응답
	56	남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	만70세 이상	생활서비스	무응답
	57	여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	만40-49세	음식업	무응답

자양4동						
	번호	성별	거주지역	연령	직업/업종	월 소득
방문자	1	여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만20-29세	회사원	201-300만원
	2	여	서울시 성북구	만20-29세	회사원	무응답
	3	여	서울시 성북구 동선동	만20-29세	회사원	101-200만원
	4	여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만20-29세	회사원	201-300만원
	5	여	서울시 도봉구 창동	만20-29세	전문직	201-300만원
	6	여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만20-29세	전문직	201-300만원
	7	여	서울시 양천구 신정3동	만20-29세	회사원	201-300만원
	8	여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만20-29세	회사원	101-200만원
	9	여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만20-29세	회사원	301-400만원
	10	여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	만20-29세	학생	100만원 미만
	11	여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만20-29세	회사원	201-300만원
	12	여	서울시 성북구	만20-29세	회사원	101-200만원
	13	남	서울시	만30-39세	회사원	무응답
	14	여	서울시 성북구 동선동	만20-29세	무직	100만원 미만
	15	남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만30-39세	회사원	무응답
	16	남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만30-39세	회사원	무응답
	17	남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	만30-39세	기타	201-300만원
	18	남	서울시 동대문구	만40-49세	회사원	무응답
	19	여	경기도 고양시	만20-29세	회사원	201-300만원
	20	남	경기도 남양주시	만30-39세	회사원	301-400만원
	21	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북동	만30-39세	회사원	201-300만원
	22	남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만40-49세	전문직	400만원 이상
사업자	23	남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만50-59세	생활서비스	400만원 이상
	24	남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만60-69세	부동산	무응답
	25	남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만50-59세	소매업	무응답
	26	여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만40-49세	기타(약국)	무응답
	27	남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만40-49세	기타	무응답
	28	남	경기도	만40-49세	생활서비스	400만원 이상
	29	여	무응답	만40-49세	기타(약국)	무응답
	30	여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만50-59세	음식업	무응답
	31	여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만50-59세	음식업	101-200만원